

2020 국별 진출전략

도미니카공화국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3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4
가. 중국 수교 3년 차	4
나. 미-중 영향력 주도권 싸움 지속	5
다. 아이티 불안 장기화	6
라. 천연가스로의 에너지원 전환 활성화	6
마. 석유 탐사권 입찰 및 발굴 착수	7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8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8
가. 정치 환경	8
나. 경제 환경	9
다. 산업 환경	10
라. 정책·규제 환경	14
2. 시장 분석	15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15
나. 교역	16
다. 투자진출	19
라. 프로젝트	21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25
가. 교역	25
나. 투자	27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28
III. 진출전략	29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29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30
3. 한-도미니카공화국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5
4. 진출 시 유의사항	38
참 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39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41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42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42
부 록	
對도미니카공화국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43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소폭성장) 전년 대비 성장세 이어가나, 성장률은 소폭 둔화 전망

- 정부 및 IMF 등은 도미니카공화국의 2019년 5%대의 경제성장을 예상하였으나, 2019년 상반기 4.7% 성장을 보였으며, 1분기(5.7%) 대비 2분기 성장률(3.7%)이 급격히 둔화되는 양상을 보여 연말까지 당초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미중 무역 갈등 등 긴장 지속, 5월 대선을 앞두고, 정책결정 지연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2020년 경제성장은 전년 대비 둔화할 것으로 전망
 -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2020년 경제성장률을 5.0%로 가정하고, 예산안 수립
 - 글로벌리서치기관인 EIU는 수출둔화, 미국경기 하강국면의 영향으로 2020년 도미니카공화국 경제성장률이 3.4%에 그칠 것으로 전망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구	백만 명	10.3	10.4	10.5	10.6	10.8	10.8	10.8	10.8
명목 GDP	십억 달러	62.7	66.2	68.9	72.4	76.0	81.3	85.5	N/A
1인당 명목GDP	달러	6,095	6,693	6,902	7,188	7,477	7,918	8,330	N/A
실질성장률	%	4.9	7.6	7.0	6.6	4.6	7.0	5.2	3.4
실업률	%	7.1	6.0	5.9	5.3	5.5	5.6	N/A	N/A
소비자물가상승률	%	4.8	3.0	0.8	1.6	4.2	1.2	1.8	2.2
재정수지(GDP대비)	%	N.A	-3.6	-0.4	-2.8	-2.9	-2.4	-3.4	-2.2
총수출	백만 달러	7,936	8,490	8,322	8,742	8,831	9,474	6,597(8월)	N/A
(對韓 수출)	"	108	129	79	83	119	155	44(6월)	N/A
총수입	"	17,029	17,642	17,290	17,702	18,016	20,591	13,718(8월)	N/A
(對韓 수입)	"	184	221	265	308	267	258	118(6월)	N/A
무역수지	백만 달러	-9,093	-9,152	-8,968	-8,960	-9,185	-10,847	-7,121(8월)	N/A
경상수지	"	-2,568	-2,170	-1,280	-814	-133	-1,160	N/A	N/A
환율(연평균)	현지국/US\$	41.81	43.55	45.05	46.06	47.53	49.51	50.91	52.78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3.91	1.77	0.22	1.16	0.27	2.09	-0.83(3월)	N/A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19.91	22.09	22.05	24.07	35.70	25.35	13.59(6월)	N/A

자료 : World Bank, 도미니카공화국중앙은행, 도미니카공화국관세청, KITA, EIU(2019, 2020년 추정/전망치)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 대중수교 3년 차, 교역 확대 및 프로젝트 분야 진출 본격화 예상
- ※ 중국 영향력 확대에 대한 미국의 견제 및 주도권 싸움 계속
- ※ 아이티 정정불안에 따른 부정적 경제효과 우려
- ※ 발전소 전환 프로젝트, 터미널 확장 등 LNG 프로젝트 활성화 전망
- ※ 석유 탐사권 입찰 및 발굴활동 착수로 산유국 변모 가능성 기대감

가. 중국 수교 3년 차

 경제협력 수혜 기대감 꾸준

- 2019년 상반기 대중 수출(US\$1.4억)이 2018년 대중 수출 총액(US\$0.9억)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으로의 광물(페로니켈) 수출 급증으로 인한 현상이며, 당초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대중 수교의 기대효과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농식품류(립, 유카, 카카오 등)의 수출은 큰 변화가 없음
- 그러나 수교(2018년 5월) 이후 광업, 자유무역지대 제조업 등에 대한 중국기업의 투자가 이루어 졌으며, 중국 주요 관광업계 및 언론 관계자들이 도미니카공화국 관광 답사를 실시하는 등 일련의 기업/인적교류 확대로 중국발 경제특수에 대한 기대감 꾸준
- 또한 중국은 도미니카공화국과의 FTA 체결 검토 가능성, 투자 유망업종, 관광객 증가 등을 현지 언론에 꾸준히 홍보하며 일대일로 정책의 주요 거점 지역인 도미니카공화국에 대해 관심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음

 플랜트, 프로젝트 분야 중국기업 진출 본격화 예상

- 2018년 11월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 방중 시 중국 상무부, 수출입은행, 개발은행 등과 프로젝트/인프라 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다수의 MOU를 체결하였음
- 동 MOU들은 중국기업 참여 조건부 우호적인 금융지원을 포함하고 있어, 저렴한 해외 파이낸싱 조달에 목마른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추진되는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 중국 정부의 파이낸싱을 수반한 중국기업 진출이 확대될 전망

 중국기업 및 중국인 증가에 따른 부정적 효과도 일부 보도

- 한편, 중국계 이주민의 저가품 유통 증가로 인한 지방 중소도시 상권파괴 우려, 중국인 운영 PVC 공장 생산품의 조악한 품질 및 저가 공세로 인한 로컬 제조기업 문제 제기 등 부정적 보도도 등장하기 시작

나. 미-중 영향력 주도권 싸움 지속

미국, 도미니카공화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견제

- 미국 정부는 다양한 채찍과 당근으로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중국 편향성을 견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2020년에도 계속될 전망
- 미국, 중국기업의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자유지역 투자를 통한 미국 시장 우회진출 예의주시
 - 2019년 1월, 미국언론에 정부 고위관계자의 “미국은 DR-CAFTA*가 비시장경제 국가나 독재 국가가 이득을 취하는 백도어가 되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이 보도되며, DR-CAFTA 퇴출 루머가 거론되었음
 - * DR-CAFTA : 미국, 중미 5개국(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및 도미니카공화국 등 7개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동 보도로 2018년 중국과 수교한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및 독재국 니카라과를 FTA에서 선별적으로 퇴출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수출자유지역 투자기업 등 재계 긴장, 외교부 장관 미국 방문 협의 시행
 - DR-CAFTA 퇴출설은 당시 미국이 베네수엘라 과이도 정권을 지지하기 위해 親마두로 성향이 강한 카리브국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압박카드로 활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수교 이후 중국의 신발 제조업체, 알루미늄프로파일 제조업체 등이 미국 시장을 겨냥하여 수출자유지역에 투자진출한 사례가 있어 중국기업 우회진출에 대한 모니터링 의미를 배제하기 어려움
- 친중 성향 다닐로 메디나 대통령의 3선 도전 좌절
 - 미국은 2019년 5월 해외 민간투자공사(OPIC) 투자사절단을 파견하여 투자 및 지역안보 협력 등을 협의, 동 사절단 대표인 David Bohigian은 투자결정을 위해 ‘법과 제도의 안정성’을 피력하며, 선거가 예정된 절차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메디나 대통령의 개헌 반대 입장 표명
 - 개헌반대를 위한 반대 시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마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019년 7월 메디나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하여 헌법을 수호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열흘 후 메디나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불출마를 선언하였음
- 북부지역 LNG 터미널 및 발전소 건설 타당성 조사 자금지원
 - 미국 무역개발처(USTDA)는 2019년 9월 도미니카공화국 에너지광업부와 ‘북부 Monte Cristi 지역 LNG 터미널 및 발전소 건설 타당성 조사’를 위한 US\$121만 규모 자금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음
 - 북부지역 LNG 터미널 및 발전소 건설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오래전부터 추진을 검토 중인 사업으로, 우리기업이 진출을 긍정 검토 중이며, 중국기업도 관심을 갖고 있음

- 동 타당성 조사 지원은 미국 인접 지역인 북부지역에 대한 중국기업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인 것으로 풀이되는데, 미국은 여러 채널을 통해 도미니카공화국이 중국과의 협력 시 국가 전략자산(항구, 광물자원 등), 사이버 안보 등의 통제권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을 간접적 어조로 촉구해 왔음

다. 아이티 불안 장기화

아이티 불안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타격 불가피

- 아이티는 부패스캔들, 유류 부족 등으로 발생한 폭력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혼란 야기
 - 반정부시위, 유류 부족 사태 등으로 공항, 항만 간헐적 폐쇄 반복
 -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들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아이티에 진출해 있는 우리 섬유/봉제 기업들에도 피해 발생
- 도미니카공화국은 유류 부족을 겪고 있는 아이티인들이 도미니카공화국으로 넘어와서 유류를 구입해 가지 못하도록 국경 인접 지역 주유소 임시 휴업을 실시하거나, 밀입국을 막기 위해 대형 트럭, 컨테이너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국경 일시 폐쇄/개방 조치를 반복
- 아이티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제2위 수출 상대국으로서, 주요 산업공단 생산차질로 인한 각종 원자재 대(對)아이티 수출 감소, 국경 지역 폐쇄조치로 인한 지역 상권 파괴 등 경제적 손실 불가피

라. 천연가스로의 에너지원 전환 활성화

퓨얼오일 발전소의 천연가스 전환 프로젝트 활발히 추진

- 2018년 초 광산업체 바릭골드가 발전비용 절감을 위해 천연가스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계 발전사 AES와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Quisqueya I(215MW) 발전소를 천연가스 발전소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AES는 LNG 터미널에서 Quisqueya I 발전소가 소재한 San Pedro de Macoris 지역까지 43km의 가스 수송관 설치 공사를 진행 중
- 2019년부터 정부도 환경보호 및 전력부문 비용 절감을 위해 발전사들의 LNG 발전소 전환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환 기업에 대해 7년~10년의 장기전력공급계약(PPA)을 체결하는 조건을 제시
 - 2019년 3분기까지 CESPM(300MW), Quisqueya II(215MW) 등이 LNG 발전소로의 전환을 전제로 전력청과 PPA 체결

- AES의 가스 수송관이 연결되는 San Pedro de Macoris 지역에는 상기 발전소 이외에도 Sultana del Este(150MW), Los Origenes(60MW) 등의 발전소가 있어 향후 동 발전소들도 LNG 전환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천연가스 터미널 확장 수요

- LNG 발전소 전환으로 인해 AES Andres 터미널의 LNG 소비는 2021년까지 현재 55,4TBTU에서 85TBTU로 50% 이상 증가할 전망이며, 증가하는 LNG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기존 터미널 부지 옆의 유보지에 LNG 재기화 터미널 확장이 추진될 예정

신규 LNG 발전소 국제입찰 추진 가능성

-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2019년 상반기 천연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한 PPA 국제입찰 추진계획을 사전예고하였으나, 추진이 지연됨. 대선 등 주요 정치 일정이 마무리 되면, 동 프로젝트 추진 검토 재개 전망

마. 석유 탐사권 입찰 및 발굴 착수

- 도미니카공화국은 현재 산유국은 아니나, 부존 가능성이 높은 4개 광구 14개 블록에 대한 탐사 추진 예정으로 향후 수년 내 산유국 변모를 기대
- 광업부는 2019년 7월 미국 보스턴에서 글로벌 석유개발사를 대상으로 로드쇼를 개최했으며, 엑손 모빌, 렉슬, 중국해양석유집단유한공사 등 11개국 26개사가 동 행사에 참여
-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2019년 10월 둘째 주까지 관심 기업의 제안서를 접수받은 후, 2019년 11월에 숏리스트를 확정하여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블록별 탐사권 입찰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 그러나, 기업 관심정도 및 참여도에 따라 일정 지연 가능성 감지
 - 광업부는 당초 관심 기업 제안서 마감기한이 지난 2019년 10월 말 현지 주재 주요국 대사관에 관련 홍보자료를 송부한 것으로 파악됨. 이로 미루어 볼 때, 동 탐사권 입찰에 대한 해외 에너지 개발사들의 반응이 폭발적인 수준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며,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탐사권을 양허하기 위해 입찰시기를 조정할 가능성이 커 보임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 2020년 5월 대선/총선 예정. 총선 결과에 따라 신임대통령 정국 주도권 확보 여부 판가름
- ※ 정치적 이슈로 인한 주요 프로젝트 추진 시기 지연,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3%대 성장 전망 가운데,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세개혁이 요구
- ※ 민간투자 촉진 법안 도입으로 인프라 개발 활성화 도모

가. 정치 환경

불확실한 2020년 대통령 선거 전망

- 2020년 5월 선거 결과에 따라서 2020년 8월부터 2020~2024년 임기의 새로운 대통령, 상/하원 의원 등의 활동이 시작될 예정
- 2004년 집권 이후 정국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여당(도미니카해방당, PLD)의 재집권이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나, 대선후보 경선 결과를 두고, 당내 분열이 발생하여 정국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제기
 - 2019년 10월 6일 치러진 주요 정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집권당 도미니카해방당(PLD) 곤살로 카스티요와 현대혁명당(PRM)의 루이스 아비나데르가 각각 승리
 - 그러나 다닐로 메디나 현 대통령의 측근인 곤살로 카스티요에게 1.4% 차로 석패한 여당(PLD) 경선 후보 레오넬 페르난데스(2096~2000년, 2004~2012년 대통령 역임)는 투표과정에 전반적인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경선 결과 불복
 - 선관위는 당초 20%만 수기 검표할 예정이었던 투표 결과를 전수 수기 검표한 후 곤살로 카스티요의 승리를 발표하였으나, 레오넬 후보자 측은 전자 투표 소프트웨어 해킹을 이용한 부정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선관위는 동 의혹 해소를 위해 투표에 사용된 장비 포렌식 실시 예정
- 포렌식 결과에 상관없이 여당은 곤살로 카스티요를 대선후보로 공표하였으며, 레오넬 페르난데스는 기자회견을 통해 도미니카해방당(PLD) 탈당과 “국민의 힘(La Fuerza del Pueblo)”이라는 정치 세력 출범을 선언
 - 2019년 10월 20일 당명을 도미니카노동자당(PTD)은 “국민의 힘(La Fuerza del Pueblo)”으로 바꾸고, 레오넬을 대선 후보로 지명하기로 했다고 발표

- 여당(PLD)은 2019년 개정 선거법에 의거, 이미 여당 경선 후보로 출마했던 레오넬이 타 정당의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
- 여당이 경선결과에 따른 내외부 갈등을 조기에 해결한다면, 곧바로 카스티요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메디나 정부의 정책을 대부분 계승할 전망
- 단, 레오넬의 출마 여부와 야당과 연대 가능성 및 이로 인한 여당 지지층 분열 정도에 따라 결선 투표(특정 후보 과반 미달성 시 6월 재투표 실시)까지 가게 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대선 승부를 예단하기 어려움

총선 결과, 신정부 국정운영 변수로 떠올라

-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총선 결과는 향후 신임 대통령의 정국 주도권 확보여부 및 국정운영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
 - 5월 선거를 통해 32명의 상원의원과 190명의 하원의원이 새롭게 선출될 예정
 - 기존 다닐로메디나 정부에서는 도미니카해방당(PLD)이 상원(26석/32석) 및 하원(106석/190석)에서 각각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여 대통령 주도로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이 가능하였음

나. 경제 환경

2020년 3%대 경제성장을 전망

- 2020년에도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나, 성장률은 전년 대비 둔화된 3%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다닐로 메디나 대통령의 3선 도전 좌절, 오데브레시 부패스캔들 추가폭로 등 정치적 이슈들로 인해 2019년 추진이 유력시되었던 주요 프로젝트(LNG 발전소 신설, 케이블카 2호선 건설 등)들의 실행이 지연되어 당초 기대했던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이 시행되지 못하였으며, 주요 정책결정이나 프로젝트 추진이 차기 대선 이후로 미루어져 종전 대비 경제 활력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도미니카공화국은 경제적으로 대미(對美)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서,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경기둔화로 인한 대미(對美)수출 감소, 미국 거주 국민의 자국 송금 감소, 관광객 방문 감소 등으로 인한 타격이 예상되므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경고

도미니카(공) 경제성장률 전망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7.0%	5.2%	3.4%	3.8%	4.0%	4.0%

자료 : EIU(2019년 9월)

재정 건전성 확보방안 마련 시급

- 한편, IMF는 도미니카공화국의 공공부채를 정부 추산치인 GDP의 50%보다 높은 53.1%로 추산하고 있으며, 조세개혁을 통해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공공부채 증가 등 재정 취약성 해결이 시급하다고 평가
 -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2020년 예산안 수립 시 재정수지 적자 목표를 종전 대비 감소한 GDP의 2.2%로 책정하였음
 - 그러나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 수립 시에도 재정수지 적자 목표를 GDP의 1.7%로 책정하였으나, 9월 기준 GDP의 2.2%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GDP의 3.4%까지 증가하여 2020년 목표의 달성 가능성이 의문시됨
 - 정부는 세입 항목에 넷플릭스, 에어비앤비, 스포티파이 등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신규 과세 계획을 반영(잠정세율 등 구체적 정보 미상)하는 등 추가 세수 확보를 계획 중이나, 대선을 앞두고, 증세, 세제혜택 축소 등의 적극적인 조세개혁 정책을 펼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관련 조치는 대선 종료 후인 하반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다. 산업 환경

산업 동향 일반

- 2019년 상반기 기준 도미니카공화국 국내총생산(GDP)은 서비스업 중심의 제3차 산업 60.4%, 광업·제조·건설업을 아우르는 제2차 산업 26.8%, 제1차 산업 5.3% 및 세금 7.5%의 비중을 나타냄
 - 관광업 호황에 따른 리조트, 상업시설 개발 확대, 인프라 확충 및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저가 국민주택 건설 프로젝트로 건설업이 약 8%의 성장을 보이며, 건설업은 2018년에도 12.2% 성장 기록
 - 도미니카공화국은 연간 관광객 657만 명(2018년 기준, 해외 거주 도미니카인 95만 명 포함)이 찾는 관광대국으로, 통상적으로 관광 산업과 연관된 유통업, 숙박/요식업의 성장이 활발한 편이나, 2019년 상반기에는 미국인 관광객 의문사 스캔들로 관광객이 감소
 - 제조업은 로컬제조 및 수출자유구역 제조업을 합산할 경우 전체 GDP의 약 14%를 차지하며, 수출자유구역의 경우 대부분 생산물을 해외로 수출하므로 GDP 비중은 낮으나, 국가 총 수출의 약 55%를 차지하여 국가 경제 및 고용창출 기여도가 매우 높음

도미니카(공) 산업별 GDP 비중

분야	국내총생산(백만 RD\$)				분야별 비중(%)		성장률(%)
	2016	2017	2018	2019(상)	2018	2019(상)	2019(상) /2018(상)
농림축수 산업	192,055	203,163	218,052	117,197	5.1	5.3	3.6
광산업	68,972	70,388	73,574	37,507	1.7	1.7	5.2
로컬제조업	386,689	410,978	456,901	235,175	10.8	10.6	1.9
수출자유구역제조업	116,137	125,039	141,859	70,979	3.3	3.2	-1.1
건설업	329,711	398,766	482,159	249,819	11.4	11.3	7.9
서비스업	2,147,312	2,321,954	2,549,262	1,336,750	60.2	60.4	4.7
유통업	374,146	395,718	437,201	220,758	10.3	10.0	2.5
운수/창고업	287,234	315,150	347,876	187,976	8.2	8.5	5.3
숙박/요식업	272,528	297,204	323,927	176,465	7.6	8.0	4.1
부동산/임대업	281,741	300,903	321,222	169,583	7.6	7.7	4.9
기타 서비스업	264,195	281,688	304,717	165,561	7.2	7.5	6.6
교육서비스	183,648	203,569	226,210	119,407	5.3	5.4	3
금융/보험업	147,576	157,912	171,596	92,832	4.1	4.2	7.7
공공행정/국방	136,756	154,465	174,791	82,477	4.1	3.7	3.9
보건서비스	104,362	116,688	135,218	69,649	3.2	3.1	4.4
전력 및 수도	60,220	62,188	65,910	33,807	1.6	1.5	8.3
통신업	34,906	36,471	40,595	18,235	1.0	0.8	-3.6
총부가가치(기초가격)	3,240,875	3,530,288	3,921,807	2,047,426	92.6	92.5	4.5
순생산물세*	246,417	272,367	314,040	164,894	7.4	7.5	6.5
합계	3,487,293	3,802,656	4,235,847	2,212,320	100.0	100.0	4.7

자료 :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은행(*주 : 2019년 성장률은 상반기 기준)

* 순생산물세 : 생산물세에서 생산물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간접세를 뜻함

전력/에너지업

-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기존 발전설비 LNG 전환 장려 및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PPA 추진 등 에너지원 다변화 추진
- 전력망 현대화 사업 지속
 - 도미니카공화국은 송배전 손실률이 약 28%로,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가 낙후되어 전기품질과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동 사업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MDB(다자개발은행) 등 대외 융자금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2020년에도 IDB의 자금지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중국 정부와도 동 사업에 대한 차관을 협의 중으로, 2020년 예산안에 중국 수출입은행 차관 US\$6.6억 반영
- E-Mobility 보급 점진적 확대 기대
 - E-Mobility 촉진법(2013년 제정)에 의거하여 2018년부터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가세, 등록세 등 각종 세제감면이 적용되면서 전기 자동차 및 오토바이 시장 확대가 기대됨

- 남부배전사 추산으로는 2019년 9월 말 기준 전기자동차 및 오토바이가 약 500대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및 관광업계는 환경보호 및 화석연료 절감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심이 높으며, 이를 위해 충전설비 등 인프라 도입을 추진
- 대표적인 관광 지역인 폰타가나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 에너지기업 CEPM는 2020년 말까지 500개소의 전기자동차 충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영 배전기업인 남부배전사에서도 2020년 1분기 중 자사 관할 지역에 10대의 고속 및 초고속 충전시설 도입을 위한 입찰공고 실시

프로젝트(건설/인프라/플랜트) 산업

- o 도미니카공화국은 재원 부족으로 정부 주도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환경·교통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자본 투자유치 필요성이 제기되어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법안 발의, 국회 검토 중

섬유·봉제업

- o 도미니카공화국은 인도, 동남아, 터키 등 섬유봉제강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 약한 편이지만 미국과의 짧은 리드타임으로 인해 유행 아이템, 계절성 상품 공급에 강점을 보이고 있음
- o 또한, 미국 정부의 아이티에 대한 무역특혜법 HOPE/HELP* 법안의 수혜를 함께 누리고 있음
 -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출자유지역 업체들은 동 법안의 혜택을 활용하여 아이티로 섬유 및 봉제 원료를 활발히 수출해 왔으며, 생산기지 일부를 아이티로 이전하기도 하였음

* HOPE(Haitian Hemispheric Opportunity through Partnership Encouragement Act) : 극빈국 아이티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발의된 미국의 무역특혜법으로, 의류 등 아이티에서 생산되는 경공업 제품 수입 시 무관세 혜택 적용. 아이티 대지진 발생한 2010년 HELP(Haiti Economic Lift Program) 법안으로 개칭되었으며, 2025년 9월까지 적용

- o 그러나, 2019년 내내 계속되고 있는 아이티의 정국불안에 따른 공장가동 파행, 최저임금 인상 우려 등으로 타격을 받고 있음
 - 유류공급 부족, 시위로 인한 근로자 출근율 하락 등으로 아이티 내 봉제공장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져 관련 제품의 대(對)아이티 수출 하락
 - 또한, 국회 계류 중인 최저임금 인상안(수출제조업종 전년 대비 78.5% 인상) 통과 시, 아이티 봉제 업계의 경쟁력 하락 및 경영 악화, 투자 철수 등으로 이어져 동 지역으로의 수출 급락 우려

자동차 산업

- o 자동차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고차가 전체 자동차 수입 비중의 약 75%를 차지하는 중고차 주도 시장

- 2018년 말 기준 승용차(세단 및 SUV에 한함) 누적 등록대수는 1,359,360대로, 전년 대비 5.8% 증가
 - 한국산 차량의 점유율은 누적 등록대수 기준 13.5%로 일본의 65.7%에 크게 미치지 못하나, 이는 한국산 차량의 수입이 본격화되기 전인 2000년 이전 등록 차량 누적에 기인
 - 5년간(2014~2018년) SUV 포함 신차 및 중고 승용차 누계 기준으로는 한국산(125,002대, 37.9%) 차량이 일본산(141,449대, 42.8%)과 근소한 차이를 보임

최근 5년간 원산지별 도미니카(공) 승용차 등록대수 및 비중

(단위 : 대)

구분		등록대수 및 비중						
		2014	2015	2016	2017	2018	누계	
							수량(대)	비중(%)
한국	소계	14,806	18,563	29,709	34,066	27,858	125,002	37.9
	신차	6,249	5,833	6,381	4,761	3,375	26,599	8.1
	중고차	8,557	12,730	23,328	29,305	24,483	98,403	29.8
일본	소계	20,815	26,549	31,146	31,981	30,958	141,449	42.8
	신차	4,118	4,614	5,544	4,741	4,699	23,716	7.2
	중고차	16,697	21,935	25,602	27,240	26,259	117,733	35.7
미국	소계	6,314	7,396	8,915	12,056	12,322	47,003	14.2
	신차	1,627	1,485	1,625	1,482	1,153	7,372	2.2
	중고차	4,687	5,911	7,290	10,574	11,169	39,631	12.0
유럽	소계	2,693	2,653	2,772	2,626	3,002	13,746	4.2
	신차	1,538	1,601	1,812	1,422	1,629	8,002	2.4
	중고차	1,155	1,052	960	1,204	1,373	5,744	1.7
기타	소계	486	515	587	723	592	2,903	0.9
	신차	200	163	212	338	365	1,278	0.3
	중고차	286	352	375	385	227	1,625	0.5
총 계		45,114	55,676	73,129	81,452	74,732	330,103	100

자료 : 도미니카공화국 국세청 Parque Vehicular 2019년

주 : 승용차 및 SUV 합산통계

- 2020년 노후 합승택시* LPG 교체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전망
 - 한편, 도미니카공화국은 민간 이니셔티브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주행 중 멈춤, 차량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 합승택시를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 추진을 검토 중
 - 합승택시 운송자 조합, 정비업체, 금융기관(할부 지원), LPG 충전소 등으로 구성된 업계 관계자들은 LPG 충전장비에 특수 장치를 부착한 중고택시 할부구입을 지원하고, 가스 충전시마다 자동으로 일정액을 할부금으로 회수하는 상품 모델을 검토 중
 - 1차로 약 10,000대 규모의 시범사업 추진을 희망하고 있으며, 동 상품은 정비 서비스 등 품질 보증까지 패키지로 구성할 예정이므로 한국산 LPG 중고차량 판매 및 AS용 부품(중고부품 포함) 수요 증가 가능성이 있음

* '데레초'라고 불리는 합승택시는 주로 15~20년 이상 된 일본산 노후차량을 활용해 주요 도로를 직진 운행하는 도미니카공화국의 대표적인 서민 대중교통 수단임

라. 정책·규제 환경

경제개방 및 투자유치로 대외교역확대 기조 유지

- 도미니카공화국은 미국, EU 및 여타 카리브국과의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임가공 거점으로서의 경쟁력 강화 및 교역 확대 계기로 활용
- 투자진출기업 지원을 위해 무역투자청(CEI-RD) 및 수출자유구역 관리위원회(CNZFE) 등 정부 기관을 통해 투자가 밀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출자유지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일반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운영하여 투자가 유인
- 자국 내 필요에 의한 원자재, 장비, 기계류 등에 대해서는 협정 비체결국에 대해서도 수입관세 영세화

기업 애로, 의견수렴 채널 운영 및 정책반영

-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2001년부터 정부위원 및 대통령이 임명한 8명의 민간 전문위원(국내 주요 산업계 핵심인사)으로 구성된 국가경쟁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를 통해 혁신 과제를 수렴
 - － 동 위원회는 행정 간소화, 선진국 R&D 인센티브제도 벤치마킹, 지역경제·수출 활성화를 위한 항만시설 확충 및 운영 재개, 항만/공항 검역장 내 냉동·냉장 시설 확충,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 등 다양한 과제를 건의하였으며, 정부는 대통령 국정과제 이행관리 시스템(SISMAP)에 반영하여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
- 또한, 민간경제인연합회 CONEP(우리나라의 전경련과 유사)은 2019년 11월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공개 정책건의를 추진할 예정으로, 동내용이 2020년 대선 후보들의 경제정책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무역협정 체결현황

상대국/공동체	협정종류	서명일	발효일
파나마	PTA(Preferential Trade Agreement)	1985년 7월 17일	1987년 6월 8일
중미공동 시장**	FTA(Free Trade Agreement)	1998년 4월 16일	각국별로 2001년 10월 3일~ 2002년 9월 3일 순차 발효
CARICOM*	FTA(Free Trade Agreement)	1998년 8월 22일	2002년 2월 5일
중미공동 시장 + 미국	FTA(Free Trade Agreement)	2004년 8월 5일	2007년 3월 1일
CARICOM + EU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2008년 10월 15일	2008년 12월 29일

자료 : 미주기구(OAS) 대외무역정보시스템

* CARICOM : 바하마, 아이티, 자메이카 등 카리브 15개국 단일 시장 공동체

** 중미공동 시장 :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 중미 5개국

2 시장 분석

- ※ 대미(對美) 경제의존도가 높으며, 소량 다품종, 가격 중심 시장
- ※ 중남미에서 가장 안정적인 경제성장 국가로서, 주요 경제권과 FTA 체결, 수출자유 지역 및 교통인프라 발달로 미국·EU 시장 임가공 진출 거점 활용 가능
- ※ 미국, EU 등 전통적인 교역·투자 파트너 외, 중국 진출 가속화로 경쟁 심화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시장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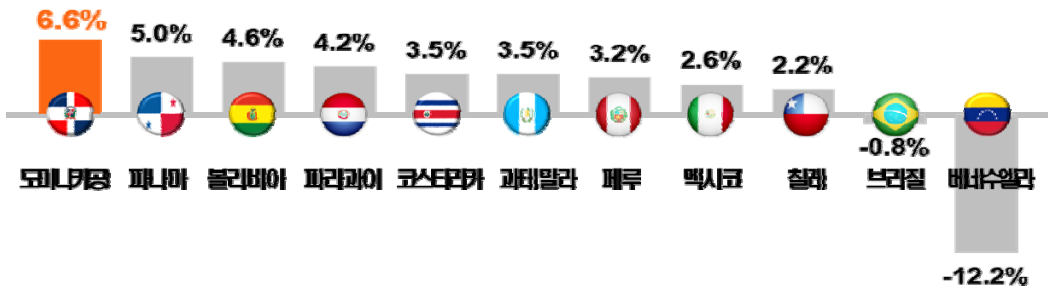
- (대미(對美) 의존 경제) 도미니카공화국은 재화, 서비스, 자본 등 전 영역에 걸쳐 미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음
 - 미국과의 교역비중이 국가 총 교역의 50% 이상(수출의 55%, 수입의 42%) 차지하며, 외국인 관광객의 40%가 미국 국적자로 주요 외화수입원인 관광 산업에도 막대한 기여
 - 주로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가족송금 규모가 약 US\$65억(2018년 기준)으로, 동일 기간 외국인 직접 투자유치액(약 US\$25억)의 2.5배에 육박
- (구매패턴) 저가, 소량, 다품종 선호
 - 도미니카공화국은 빈부격차가 심해 소비 시장이 양극화 되어 있으며, 소수 부유층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오가며,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고가품을 구매하는 반면, 대다수 국민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 저가 제품을 선호
 - 컨테이너 베이스의 오퍼능력을 가진 대형 바이어가 많지 않으며, 미국, 파나마 등 인근국에서 콘솔 포워더를 이용한 구매를 선호하는 편

전략적 가치

- 중남미·카리브 지역의 대표적 고성장 국가
 - 도미니카공화국은 2014년 이후 연평균 6% 이상 성장하여 파나마와 함께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안정적이고,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음
 - IMF 통계 기준, 1980년부터 2018년까지 39년간 단 세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경제적 저력을 갖춘 국가임

* 1985년 △2.1%, 1990년 △5.5%, 2003년 △1.3%

최근 5년간('14-'18) 중남미 주요국 평균 경제성장률



자료 : IMF 통계를 바탕으로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 작성

○ 선진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

- 도미니카공화국은 미국, 유럽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며, 전국적으로 산재한 70여 개의 수출자유지역을 활용한 임가공 수출이 활성화되어 있음
- 또한 항구/공항 등 교통 인프라가 발달하고, 미국·유럽 등 빅마켓과 지리적, 물류적으로 인접하고 있어 해외 진출 임가공 기지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음

나. 교역

수출입 동향 일반

- 2018년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출입액은 각각 US\$94억 7,400만, US\$205억 9,100만으로, US\$108.5억의 무역적자 기록
- 2016년 이후 원유가격 상승으로 무역적자 폭 확대 추세
- 2019년 상반기 기준 석유제품 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약 US\$7,000만 증가하였으나, 폰타 카탈리나 석탄화력 발전소가 부분 가동됨에 따라 디젤 발전수요가 감소하였으며, 2019년 9월 전력계통 병입 테스트를 시작한 제2호기까지 가동에 들어가는 2020년이면, 원유 수입 비용 감소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폭 완화가 기대됨

도미니카(공) 교역추이

(단위 : US\$백만)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 출	8,490	8,322	8,742	8,831	9,474
수 입	17,642	17,290	17,702	18,016	20,591
무역수지	-9,152	-8,968	-8,960	-9,185	-10,847

자료 :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2018년 12월)

도미니카공화국의 주요 수출국 및 수출품목

○ 주요 수출국

- 도미니카공화국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으로, 2018년 대외 수출액의 약 49%가 미국으로 수출되었으며, 미국령 푸에르토리코까지 합산할 경우 대미(對美) 수출 규모는 도미니카공화국 총수출의 55%를 상회하며, 자유무역지대에서 생산한 전력 부품, 의료·수술용품을 비롯하여 의류, 약세서리, 시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을 수출하고 있음
- 2위 수출국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아이티로, 섬유 및 봉제원료를 비롯하여 시멘트, 식료품 등 원자재 및 기초생활 품목 등을 수출
- 3위와 4위는 각각 캐나다와 인도로 Pueblo Viejo 광산에서 생산된 금광을 주로 수출하고 있음

도미니카공화국의 주요 수출대상국

(단위 : US\$백만)

순위	2016년		2017년		2018년	
	국가	수출액	국가	수출액	국가	수출액
1	미국	4,096	미국	4,195	미국	4,682
2	아이티	831	아이티	852	아이티	883
3	캐나다	769	캐나다	787	캐나다	689
4	인도	592	인도	578	인도	638
5	푸에르토리코	443	푸에르토리코	497	푸에르토리코	562

자료 :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2018년 12월)

○ 주요 수출품목

- 총 수출의 약 55%는 수출자유지역소재 제조업체를 통해 이루어짐
- 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 수출품목은 의료·수술용품(US\$15억), 전력개폐기 등 전기부품(US\$12억), 섬유봉제품(US\$11억), 시가(US\$9억) 등임
- 수출자유지역 이외 지역의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금(US\$14억), 농산물(US\$7억) 등이 있음

○ (2019년 수출 특이사항) 대중 수출 급등

- 2019년 상반기까지 도미니카공화국의 대중 수출은 약 US\$1.37억으로, 수출 대상국 순위에서는 10위권 밖이나, 상반기 기준으로 이미 2018년도 대중 수출 총액(US\$9,272)을 초과하였으며, 이는 중국으로의 페로니켈 수출 급증에 기인

도미니카공화국의 주요 수입국 및 수입품목

○ 주요 수입국

- 최대 수입대상국은 미국으로 총수입의 42%를 차지하며, 중국은 제2 교역국으로 약 14%의 비중

도미니카공화국의 주요 수입대상국

(단위 : US\$백만)

순위	2016년		2017년		2018년	
	국가	수입액	국가	수입액	국가	수입액
1	미국	7,156	미국	7,632	미국	8,671
2	중국	2,217	중국	2,379	중국	2,792
3	멕시코	1,016	멕시코	852	멕시코	757
4	브라질	783	브라질	617	브라질	756
5	스페인	603	스페인	588	스페인	717

자료 :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2018년 12월)

○ 주요 수입품목

-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및 정제유(US\$37억), 수출자유지역 임가공용 원자재(US\$35억), 자동차/가전 등 내구소비재(US\$13억), 가공식품(US\$11억), 의약품(US\$6억) 등임

 수입관세 현황

- 대한민국을 포함, 별도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은 0%~40%의 수입관세율을 적용받음
 - 20%가 가장 일반적인 세율이나, 품목별로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단, 농기계, 의약품, 섬유기계, 기계부품 등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되면서 국내생산이 저조한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와 상관없이 무관세가 적용됨
 - HS Code 8단위 기준 7,242개 품목 중 절반 이상의 품목 0% 적용

 수입규제, 비관세 장벽

- 도미니카공화국은 환경 및 국민 안전,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음
 - (금지 품목) 연한* 경과 중고차 및 사고차량, 우측핸들 차량, 중고 가전제품, 중고의류, 인간/동물의 배설물 및 각종 쓰레기, 폐기물, 구제역 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육류 및 가공품 등
 - * (중고차 수입 금지 연한) 승용차 : 5년경과, 중고트럭 등 중장비 : 15년경과
 - (제한 품목) 무기, 폭발물 등 위험 물질, 식품·의약품·화장품 및 체내에 직접 삽입되는 의료용품, GPS 장치가 부착된 제품 등은 인증/수입허가 관련기관의 승인 취득 필요
- 협회·단체 등에 대한 특혜 제공
 - 도미니카공화국은 특정 협회 및 단체 가입업체에 대한 관세 적용의 혜택을 부여하는 사례가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 자동차의 일반수입관세(FTA 미적용 시)는 20%이나, 자동차 딜러협회인 ANADIVE, ADECI, ASOCIVU 등에 회원사로 가입할 경우 관세를 50% 감면받아 10%의 관세만 납부하면 됨

- 딜러협회 가입을 위해서는 적정 규모 이상의 매장 및 전시장 보유, 기존 회원사의 추천 등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중고차 및 중고타이어 등에 대한 수출 신고가격 불인정
 - (중고차) 한국산 중고차량의 수입이 대폭 증가하면서 업계의 견제와 당국의 감독이 강화되어 현지 세관은 수입관세 부과 시 수출신고필증을 통해 신고 된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제품에 대한 거래가격을 별도로 책정. 이로 인해 수입업체의 세금부담이 늘면서 바이어들의 중고차 수입이 감소하고, 저가 선호 현상이 강화됨
 - (중고타이어) 세관은 중고타이어의 수입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고타이어 수출 단가를 약 US\$20 수준으로 책정하여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며, 바이어는 세관의 결정은 중고타이어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 규제조치*의 연장성에 있다고 평가
- * 2019년 상반기부터 제조 4년경과 타이어 사용을 규제하는 법령 발효. 단속적발 시 벌금부과 및 차량 견인조치

다. 투자진출

외국인투자 동향

- 2018년 도미니카공화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US\$25.4억으로 전년 대비 약 29% 감소하였으나, 이는 전년도에 도미니카공화국 최대 맥주회사인 Cerveceria Nacional Dominicana의 지배구조 변경(브라질 Ambev사 지분을 확대 51% → 85%)으로 인해 2017년 외국인 직접투자가 약 48% 급증했던 데 따른 효과임
 - 해당 특이치를 제외할 경우 도미니카공화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매년 US\$25억 내외로 중미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
 - 2010~2019년 6월까지 투자누계 기준, 주요 투자국은 미국(21.5%), 캐나다(18.9%), 브라질(10.1%), 스페인(6.9%), 멕시코(3.6%) 순
 - 아시아 국가의 대(對)도미니카공화국 투자비중은 아직까지 국별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나, 중국자본 투자진출 확대에 대한 기대 분위기 조성
 - 중국과의 수교 이후 2개 기업이 수출자유구역에 신발, 알루미늄 프로파일 제조업에 투자함
 - 통계상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중국 광산기업 종진링난공사는 오래전부터 호주의 자회사 Perilya 통해 Cormidom 구리·아연광산에 간접투자하고 있음
 - 2010년~2019년 6월까지 투자누계 기준, 업종별로는 도소매/제조업(25.5%), 관광업(19.1%), 광업(15.7%), 부동산(14.8%), 수출자유지역*(7.6%) 순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루어짐
- * 중앙은행은 수출자유지역에 대한 투자를 별도의 업종별 통계로 구분하지 않고 있음

- 단, 최근 1년 반(2018~2019년 6월) 동안에는 관광업(34.8%), 부동산(19.7%), 전력(10.0%), 수출자유지역(9.2%) 등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며, 캐나다 Barrick Gold 사는 Pueblo Viejo 광산 효율 개선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해 US\$10억 추가 투자계획을 밝힘

최근 5년간 연도별 외국인투자(FDI) 유입 추이

(단위 : US\$백만)

국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누계 2010~ 2019년 6월	비중 (%)
미국	321.0	405.1	355.8	732.1	708.8	393.7	5,095.0	21.5
캐나다	157.5	90.9	479.5	473.4	329.3	131.4	4,477.8	18.9
브라질	427.5	(424.6)	147.8	998.8	71.1	49.3	2,385.5	10.1
스페인	6.6	32.0	281.4	205.9	287.8	333.2	1,647.2	6.9
멕시코	244.0	(18.8)	118.3	(45.4)	(80.4)	166.1	864.2	3.6
버진아일랜드	35.0	1.6	23.5	52.0	74.0	62.1	475.7	2.0
베네수엘라	44.1	30.7	15.9	7.7	29.1	(32.8)	475.5	2.0
네덜란드	70.2	(133.6)	35.4	30.9	37.1	0.8	212.2	0.9
프랑스	39.5	3.1	4.4	6.1	4.5	6.6	171.3	0.7
이탈리아	10.0	(0.8)	48.4	32.4	24.0	27.6	166.8	0.7
파나마	(19.7)	10.9	4.7	2.9	12.4	6.1	125.3	0.5
엘살바도르	16.5	-	15.2	-	-	-	105.3	0.4
영국	2.6	10.5	1.1	3.1	5.3	2.6	102.7	0.4
콜롬비아	0.8	3.6	4.3	2.2	0.6	(0.8)	97.6	0.4
독일	2.9	7.5	6.5	7.4	19.8	10.0	76.0	0.3
스위스	0.9	4.5	11.8	9.0	5.8	6.5	46.9	0.2
호주	(14.2)	23.6	(3.9)	(7.8)	(0.1)	(2.5)	39.3	0.2
케이만군도	(9.6)	(53.8)	(122.4)	9.9	(33.8)	(20.0)	(66.4)	-0.3
덴마크	-	3.8	31.9	62.6	(459.7)	14.6	(335.5)	-1.4
기타	872.9	2,208.7	947.1	986.8	1,499.7	204.4	7,555.2	31.9
계	2,208.5	2,204.9	2,406.7	3,570.0	2,535.3	1,358.9	23,717.6	100.0

자료 :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은행(2019년 6월)

투자진출 장벽

- (기본원칙) 도미니카공화국은 외국인 투자진출에 대한 명시적인 제도적 진입장벽은 없음
 - 외국인투자법(Ley16-95)에 의거해 외투기업에 내국민 대우를 하고 있으며, 국익 및 안보 등과 직결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투자진출에 특별한 진입장벽이 없음
 - 위험물, 방사성 폐기물 등 처리, 공중보건 및 환경에 영향을 주는 활동, 국가안보 위해 물질이나, 장비 생산 등에 대해서만 외국인투자가 제한됨
- (최저임금 인상 및 사회보장세 부담 증가) 투자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
 - 도미니카공화국은 2019년 9월에 일반 사무직 등에 해당하는 비분류업종의 최저임금을 14% 인상(기업규모별 US\$212~US\$348 적용)하였으며, 2019년 하반기에는 수출자유지역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협의 예정

- 노동계는 일반 지역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출자유구역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비 분류업종 수준으로 상향 통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출자유구역 입주기업들은 동 요구 조건이 수용될 경우 수출자유구역의 경쟁력이 하락한다고 경고

* 수출자유구역 근로자 현행 최저임금 : RD\$10,000(US\$200)

- 또한, 최근 노동부는 수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출근일수 부족 등으로 법정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벌금부과 및 면세 허가증 승인을 불허 계획을 통보하여 업계 부담 증가

* 도미니카공화국의 고용주 사회보장세 부담 비율은 급여의 16.19~16.49% 수준임

라. 프로젝트

정부 주도 프로젝트 시장 일반 동향

- 도미니카공화국은 재정 및 행정역량 부족으로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경제발전 및 도시발달 수준에 맞춘 환경, 교통 등 인프라 개선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투자가 여의치 않은 상황을 고려, 민간부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음
-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2018년 부패지수 조사 결과 도미니카공화국은 180개국 중 129위를 차지했으며, 30점 득점으로 중남미 지역 평균(44점)에도 미치지 못함
-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업무추진 일정이나, 프로젝트 입찰 과정이 불투명하고, 정부 추진 대형 프로젝트가 불분명한 사유로 취소 또는 지연되는 사례* 종종 발생
 - * (Punta Catalina 화력발전소) 당초 2017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2019년 9월 말 기준 일부 가동. 정·재계 주요 인사 뇌물 스캔들 연루, 재판 진행. 공사대금 부풀리기 논란
 - * (산토도밍고 케이블카 2호선) 최초 입찰공고(2018년 12월) 이후 스펙 9차례 수정. 기술심사 결과 개봉 후 2019년 7월 입찰 취소
 - * (Monte Grande 댐) 낙찰 당시 고가수주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사유로 인한 계약대금 상향조정 협의 중, 파업 등으로 인한 공정 지연 우려
- 무역관이 현지 IDB 관계자 면담 결과, 프로젝트 진행 시 주요 애로사항으로 국회 심의 절차 등 현지 정부의 행정처리 지연으로 대출이 기승인 된 프로젝트의 추진 일정이 미뤄지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사례 언급
- MDB(다자개발은행) 등 국제 파이낸싱이 연계된 대형 프로젝트가 아닌 경우 대부분 국내입찰로 추진, 로컬기업 또는 기진출 외국기업 현지 법인 수주



주요 경쟁국 동향

- 프로젝트 시장점유율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는 없으나,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 북미·유럽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중국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될 전망
- (미국) 민간발전사업자인 AES는 현지 발전 시장 및 LNG 시장에서 활약이 두드러지며, Flour, McDermott(구 CB&I) 등이 광산 조성, LNG 터미널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음
- (프랑스) 도미니카공화국에 대한 주요 채권국으로 교통 분야 프로젝트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음
 - 프랑스개발청(AFD)은 2011년부터 대중교통 부문 개선 관련 대규모 용자를 지원하여 주재국 교통청 INTRANT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구상단계부터 공동 협의
 - 지하철(Thales, CIM, TSO), 케이블카(POMA)등 산토도밍고, 주요 대중교통 프로젝트 수주 및 산토도밍고 국제공항 위탁운영(VINCI) 등 시행

도미니카 공화국 대외채무 현황(2018년 말 기준)

분류	기관	금액(US\$백만)	비율(%)
다자개발은행	IDB	3,170.3	14.7
	World Bank	920.8	4.3
	CAF	180.4	0.8
	IMF	-	-
	기타	424.3	2.0
	소계	4,695.7	21.8
양자	프랑스 (AFD)	554.4 (456.4)	2.6 (2.1)
	스페인	404.1	1.9
	브라질	385.0	1.8
	베네수엘라 (페트로카리베)	216.4 (56.4)	1.0 (0.3)
	일본	21.2	0.1
	미국	14.6	0.1
	기타	498.6	2.3
	소계	2,094.3	9.7
	은행	171.8	0.8
기타 대외 민간기관 등	국채	14,596.8	67.7
	비금융기관	6.0	0.0
	소계	14,774.5	68.5
	대외부채 총계	21,564.6	100.0

자료 : 공공부채관리국(2018년 12월)

- (스페인) 언어적 장벽이 없는 히스패닉 문화권으로 일찍부터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에 진출해 왔으며, 국제협력 기구인 스페인 개발협력공사(Aecid)에서 상하수도 개선 등 수처리 분야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를 지원
- (중국) 국교 수립 이후 프로젝트 시장 진출 박차, 대규모 금융지원 수반
 - 현지기업과의 제휴, 프로젝트 수주활동 본격화
 - * (CSCEC) 현지 주요 건설사 Sinercon과 인프라, 부동산 프로젝트 협력 MOU 체결(2019년 1월)
 - * (Sinohydro) 송전공사 광케이블망 설치 수주(2018년 7월), 전력청 배전망 현대화 사업 수주(2019년 9월)
 - 중국수출입은행은 전력망 개선 프로젝트에 US\$6.6억 규모 융자 지원계획을 밝혀 동 분야에 중국기업 진출 확대 및 우리기업과의 경합* 예상
 - * 한국전력은 도미니카공화국 전력청이 주요 MDB의 금융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배전망 현대화 사업에 2011년부터 참여하고 있음

우리기업의 프로젝트 참여 현황 및 진출 가능성

- 배전망 현대화 프로젝트
 - 한국전력은 도미니카공화국 전력청이 MDB 용자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배전망 현대화 사업에 2011년부터 참여 중. 2018년 8월 World Bank 용자 프로젝트 US\$3,780만 수주에 이어, 2019년 9월 European Investment Bank 용자 프로젝트 US\$3,466만 수주
 - 2020년에도 IDB가 지원하는 US\$1.5억 규모의 입찰이 예정되어 있어 동사업 추가 수주활동 추진 예정. 동 프로젝트는 당초 2019년 추진 예정이었으나, 재무부의 승인지연으로 2020년으로 추진 시기 연기

한국전력 도미니카공화국 배전망 현대화 사업 수주현황

사업기간	계약규모	발주처	재원
2011~2013	US\$4,630만	도(공) 전력청	IDB 용자
2016~2018	US\$3,850만	도(공) 전력청	OPEC 용자
2018~2020	US\$3,780만	도(공) 전력청	World Bank 용자
2020~2021	US\$3,466만	도(공) 전력청	EIB 용자

자료 : 관계기관 자료 무역관 취합(2019년 9월 EIB 수주내역 반영 최신통계)

- LNG 관련 프로젝트
 - (LNG 발전사업) SK E&S는 도미니카공화국에서의 LNG 복합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타당성 조사 시행 중. 당초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2019년 상반기에 LNG를 에너지원으로 한 장기전력구매(PPA) 국제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사업시기 및 발주방식 등 현지 정부의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어 동 입찰은 2020년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며, SK E&S는 로컬 파트너와 협력하여 자체 사업 추진 포함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 검토 중

* 2020년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예산안에 해외차입을 전제로 한 US\$1억 규모의 만사니요 항구 확장 및 현대화 프로젝트 반영, 북부지역에 대한 LNG 발전소 도입의지로 해석 가능

- (LNG 터미널 확장)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발전소 LNG 전환 장려정책으로 가스 수요가 증가하여 AES의 Andres 터미널 확장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기술력을 갖춘 우리기업의 참여 유망

○ 수자원 관리

- 유엔식량기구(FAO) 기구 발표에 따르면, 도미니카공화국은 중미·카리브 지역 1인당 연간 물 소비 1위(714m³) 국가이며, 농업 분야에서 80%가량 소비하므로 농업수리계획이 필요하나, 현재 기술이 없고, 2020년에는 물 부족 현상 우려
- 이외 수도 산토도밍고 및 제2 도시 산티아고 등 주요 도시마저 상하수도 보급이 100%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 시설들도 노후화되어 개선 필요
- 대표적 관광지인 폰타카나 지역의 경우, 리조트 외 일반 주거 지역 상하수도 시설 미비로 인해 향후 환경오염으로 인한 관광자원 파괴가 우려됨. 이로 인해 폰타카나 그룹을 위시하여 현지 리조트 운영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정부에 US\$2억 규모의 상수도 공사 PPP 사업을 제안

2020년 도미니카공화국 예산(안) 반영 주요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규모 (US\$백만)	2020 예산 (US\$백만)	재원조달 (차입기관)
전력	중/저전압 전력망 현대화	656	41	해외차입 (중국수출입은행)
	배전망 전력손실 감축	155	6	해외차입(IDB)
항만	만사니요 항구 확장 및 현대화(1단계)	100	2	해외차입(미정)
수자원	Oriental Barrera de Salinidad 상수도 확장	97	18	해외차입(미정)
	Cañada de Guajimía 수처리	50	15	해외차입(미정)
	농업용수 통합 물 관리	29	4	해외차입(IBRD)
교통	산토도밍고 지하철 2호선 연장	50	2	해외차입(AFD)

자료 : 도미니카공화국 2020년 예산안(2019월 9월말 발표/12월 국회의결 추진)

가. 교역



한국의 대(對)도미니카공화국 교역 동향

- 한국과 도미니카공화국의 교역은 최근 3년간 지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대한수입액은 2019년 6월 기준, 전년 대비 감소세($\Delta 10.5\%$)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대(對)도미니카 공화국 수출 비중의 약 50%를 차지하는 자동차 수출 감소에 기인
 - 자동차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은 ① 엔저 장기화로 일본산 자동차 가격 경쟁력 개선, ② 세관의 감독 강화(신고가격 불인정, 언더밸류 단속)로 인한 중고차 수출환경 위축, 저가품 위주 수출, ③ 신차 수출대수 상대적 감소 등임
- 대한수출액은 48.3%의 높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주요 수출품목인 폐배터리 수입이 급감하였기 때문
 -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2018년 하반기에 폐배터리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수입 국가의 처리업체가 폐배터리를 친환경적 처리 절차를 거쳐 재활용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출을 선별적으로 허가하고 있으나, 해당 제품을 수집, 한국으로 주로 수출하던 기업이 최근 영업거점을 국외로 이전

한-도미니카공화국 연도별 교역 추이

(단위 : US\$백만)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수출	265	308	267	258(-3.5%)	118(-10.5%)
수입	79	83	119	155(30.2%)	44(-48.3%)
무역수지	186	225	148	103	74

자료 : KITA(2019년 6월)



한국의 대(對)도미니카공화국 수출품목

- 한국의 대(對)도미니카공화국 수출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기부품 등 3대 품목에 편중(총 수출의 약 72%)되어 있음
- 주요 수출품목이 자동차 및 부품에 집중되어 있어 2018년 한국산 중고 자동차 수입에 대한 세관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총 수출규모 3.5% 감소
- 2019년 상반기 기준 배전부분품, 축전지, 의약품, 변압기 등의 수입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하였음

- 배전부분품은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해 있는 미국계 전력 부품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단일기업의 수출로 파악
- 2019년 상반기 변압기 수출이 전년 대비 3,189% 성장하였는데, 이는 2018년 한국전력의 배전망 현대화 사업 수주 관련, 프로젝트에 사용될 품목들이 수입되었기 때문

한국의 대(對)도미니카공화국 수출품목(상위 10개 품목)

(단위 : 천 달러, %)

순위	품목코드 (MTI)	품목명	2018년		2019년 6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257,607	-3.5	118,196	-10.5
1	7411	승용차	109,209	-11.7	42,950	-25.9
2	8492	배전부분품	43,015	-1.3	29,134	37.9
3	7412	화물자동차	25,472	-1.8	9,011	-21.7
4	7420	자동차 부품	7,896	1.3	3,444	-17.6
5	8352	축전지	3,141	-19.4	2,935	67.4
6	2262	의약품	3,270	-1.2	2,048	94.1
7	2140	합성수지	3,969	113.1	2,018	-9.8
8	8412	변압기	55	-97.2	1,804	3,189.0
9	7251	건설중장비	3,456	-23.2	1,774	-26.1
10	6111	철강 및 비합금강형강	2,803	-8.8	1,633	0.0

자료 : KITA(2019년 6월)



도미니카공화국의 대한 수출품목

- 구리, 알루미늄 등 광물 및 고철과 폐배터리 등 폐금속 자원이 한국의 대(對)도미니카공화국 수입의 약 3분의 1 차지
- 이외 품목으로는 진단용 조제시약, 의료기기 등 주로 수출자유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

도미니카공화국의 대한 수출품목(상위 10개 품목)

(단위 : 천 달러, %)

순위	품목코드 (MTI)	품목명	2018년		2019년 6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154,666	30.2	43,739	-48.3
1	8147	의료용전자기기	26,134	39.0	13,887	6.3
2	9509	기타 의료위생용품	14,419	45.7	8,152	21.6
3	6221	동괴 및 스크랩	8,158	-6.4	7,168	229.8
4	8353	폐건전지	31,909	-4.2	5,327	-73.2
5	7331	의료용기기	7,893	-34.3	2,892	-39.3
6	6211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8,951	5.9	2,762	-43.1
7	8292	기타 가정용 전자부품	0	0.0	972	0.0
8	6184	고철	2,910	-39.2	776	-49.1
9	5212	신발	843	-9.1	357	39.1
10	8492	배전부분품	87	-15.2	285	493.9

자료 : KITA(2019년 6월)

나. 투자

한국의 대(對)도미니카공화국 투자 현황

- 우리기업의 대(對)도미니카공화국 투자는 카리브원조계획(CBI)이 발효된 1984년 전후 섬유봉제 업계의 진출로 시작되었으며, 한 때 교포 기업 포함 40여 개 한인기업이 있었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섬유봉제 업계 경쟁 과열, 2005년 섬유 쿼터제 폐지로 인한 수출 환경 악화로 많은 기업들이 폐업, 철수하였음
- 대규모 제조업으로는 현재 월비스(구 미래와 사람)가 운영 중이며, 섬유봉제 이외 업종으로는 삼성전자, 한국전력, SK E&S 등이 진출

한국의 대(對)도미니카공화국 투자 현황(1980~2019년 누계)

(단위 : 천불)

업종	중분류	소분류	신규법인 (개사)	신고금액 (US\$천)	투자금액 (US\$천)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셔츠 및 블라우스	1	191,850	187,749
		기타 봉제의복	3	4,840	3,43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2	700	64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	115	115
	기타제품		0	100	0
도소매업	화장품 및 화장품용품		0	1,019	0
	중고 자동차 판매업		1	20	2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	2,500	2,06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1,150	1,145
금융 및 보험업			1	331	329
농업, 임업 및 어업			1	31	31
미상			0	32	0
총 합계			12	202,687	195,53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9년 6월)

- 2019년에는 세아상역이 도미니카공화국 투자를 결정하였음. 세아상역은 아이티 카라콜 공단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이티 정치 불안과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 등을 고려하여 도미니카 공화국에 대체 거점 마련 추진

우리기업 투자진출 성공 사례

- ‘월비스’는 Old Navy, Gap 등 미국 주요 브랜드에 먼 티셔츠를 수출하는 봉제업체로, 현지 경제 발전 및 고용촉진에 기여한 공로로 2001년에 도미니카공화국 최고 권위의 훈장인 ‘3인 국부훈장’을 서훈 받음

- 동사는 편직-염색-가공-봉제에 이르는 전 공정을 수직계열화하여 생산 효율성과 가격 경쟁력을 높였으며, 수출자유지역 관리위원회, 지역 정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애로사항 발생 시 현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신정부와의 협력 채널 구축

- 2020년 8월 신임 대통령 취임 예정으로, 신정부에서 추진될 경제/개발 분야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우리기업 참여를 위해 협력채널 구축 필요

한국산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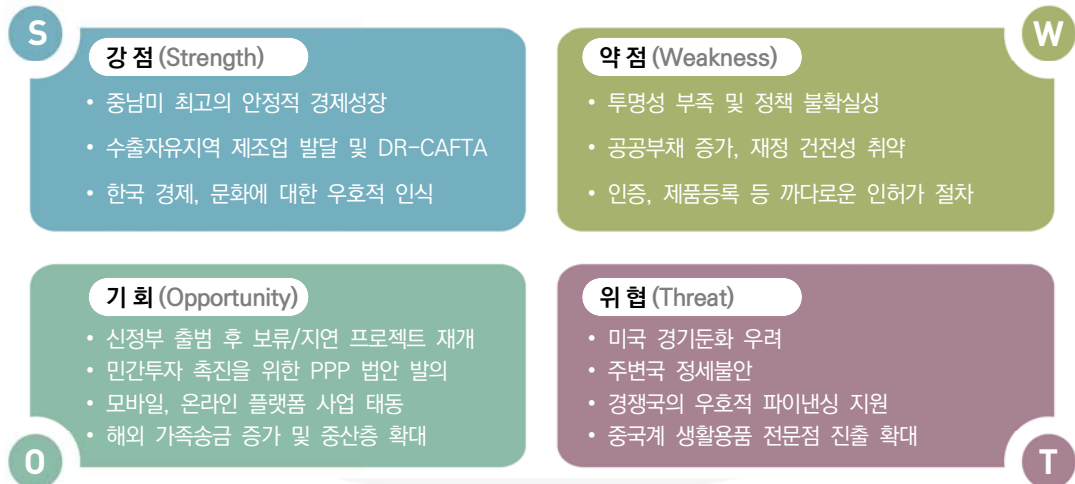
- 한국과 도미니카공화국은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아 우리기업 수출 경쟁력 개선을 위해 FTA 체결이 요구됨
 - 장거리로 인한 운송료와 배송기간을 고려할 때, 경쟁국 대비 높은 관세(3~20%)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매력도 반감(미국, EU는 FTA를 체결하고 있어 무관세 수입)
- 다만, 현지 주요 바이어들조차 양국 교역규모 등을 고려할 때 우리정부의 양자 협상의지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SICA 등 기존 역내 다자 FTA 편입 가능성 검토를 희망

Ⅲ. 진출전략

- ※ 무관세 적용 품목, 프리미엄 한류 소비재 마케팅 강화
- ※ 유력 로컬파트너와의 제휴 강화를 통한 시장진입 장애 요인 제거
- ※ MDB 활용사업 및 PPP 사업기회 발굴, 전력·인프라 등 경쟁력 우위 프로젝트 진출 확대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도미니카공화국 시장 SWOT 분석>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프리미엄 한류 소비재 진출 지원 강화 • 전력·인프라 프로젝트 진출 확대	신규 유망 품목·분야 발굴
ST 전략 (강점 활용)	• 무관세 적용 유망 수출품목 발굴, 마케팅 강화 • 제조업 투자진출을 통한 인근국 시장 공략	로컬 파트너와의 제휴 강화
WO 전략 (기회 포착)	• 신정부 정책사업 참여 기회 모색 • 우리기업 미비점 보완 가능한 현지 우량 파트너 발굴	투자진출을 통한 중남미 제조거점화
WT 전략 (위험 대응)	• MDB 활용사업 및 PPP 사업기회 발굴	신정부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협력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1. 소비재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K-Beauty, K-Food 인지도 상승 및 한류 팬들의 한국 상품 구매수요 확대
- 대형 유통망의 글로벌 소비재 라인업 확충 수요 증가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한류 팬과 해외 체류 경험을 통해 한국식품, 화장품 등을 접한 경험이 있는 현지인 증가. 또한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K-Beauty, K-food 체험 후기 등 한류 소비재 관련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한국산 소비재에 대한 관심과 수요 확대
- 현지에서도 한국식품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큼
 - 한인교포 유통기업인은 현지 대형 유통망을 대상으로 알로에 음료, 라면 등을 도매 유통하고 있으며, 2018년 9월에는 한국식품 소매점을 직접 오픈하였고, 2019년 10월 기준 3개 점포로 확대
 - 현지 최대 리테일 유통망인 Grupo Ramos(La Sirena, Supermercado Pola 등 체인 보유)는 중산층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한 ‘세계 식품 코너(Sabor del Mundo)’ 런칭 추진 중
- 한국 드라마, 콘텐츠의 인기로 한국식 피부 관리법도 주목을 받으며,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관심 증가
 - 마스크팩, 클렌징티슈 등 미국기업의 한국산 OEM 화장품이 현지 대형 유통망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한국산 화장품 수입에 대한 바이어 문의도 증가
- 최근 주요 도시 중심으로 Miniso, Ximivogue 등 중국계 생활소품 전문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해당 기업들은 화장품, 식품부터 디지털 소형가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1,000여 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하여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기에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고 디자인과 품질도 개선되어 한국산 소비재를 위협하고 있음
- 정부 당국의 보건인증 관리 감독 강화
 - 식품, 화장품 등 주요 소비재 품목은 현지 수입·유통을 위해 보건부의 위생인증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수입 통관 시 보건부 인증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엄격해지고 있음

산업별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인증취득 역량을 갖춘 현지 벤더 발굴을 통한 대형 유통망 진출
 - 도미니카공화국은 온라인 쇼핑몰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재 제품의 현지진출 성공은 La Sirena, Plaza Lama, Almacenes Unidos, Bravo, Carrefour 등 대형 유통망 입점여부에 달렸다고 할 수 있음

- 대형 유통망은 보건부의 위생인증서가 진행에 따른 비용·인력절감을 위해 로컬 벤더를 통해 인증이 완료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
- 따라서 현지진출을 위해서는 대형 유통망에 벤더 등록된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임
- 적절한 인증획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입·유통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대형 유통망 납품이 불가능하여 장기적인 성장이 어려우며, 세관 적발 시 벌금은 물론 제품을 압류당할 수 있음
- SNS 활용한 범스페인어권 대상 마케팅
 - 스페인어 영상 콘텐츠 제작 시 브라질을 제외한 중남미 전역과 미국 내 히스패닉 시장에서 활용 가능하므로, 중남미에서 영향력이 있는 소셜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유튜브, 인스타그램 마케팅 기대효과가 높음
- 유망품목
 - (식품) 인스턴트 라면, 즉석요리, 음료 등
 -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 자외선 차단 제품, 트러블 관리 제품 등

2-2. 미용·의료기기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소득수준 향상으로 비만 관리, 피부 관리 등 미용시술 수요 증가, 에스테틱 숍 확대
- 의료기기에 대한 무관세 적용으로 미국 및 유럽산 의료기기와 유사한 조건에서 경쟁 가능
- 병원시설 현대화 추진에 따른 의료기기 수요 증가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도미니카공화국의 다이어트, 웰빙식품 시장은 연평균 7%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미용 관리에 대한 현지 여성들의 관심과 투자 증가를 확인할 수 있음
 - 연중 해수욕이 가능한 기후와 휴양지 발달로 레이저 제모와 비만 관리, 피부리프팅 등 미용관리가 성행하며, 에스테틱 산업 확장
 - ‘K-Beauty’ 인지도 제고로 한국인의 피부관리 기법, 한국산 피부미용기기에 대한 호감도 상승
- 보건·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 지속
 - 도미니카공화국은 의료기기에 대하여 원산지에 상관없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며, 합리적인 가격의 한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선호도 확대
 - 병원시설 현대화 추진으로 의료기기 수요 증가 예상. 2020년 정부 의료기기 구입예산 US\$7,000만 책정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북미지역 개최 주요 전시회, 컨퍼런스 적극 활용
 - 도미니카공화국 바이어들은 주로 북미지역의 전시회, 컨퍼런스에 방문하여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잠재 거래선을 발굴하므로, 전시회 한국관 참가 또는 개별부스 운영을 통한 마케팅 시 효과적
 - 현지 바이어들의 방문수요가 가장 높은 전시회는 플로리다의료기기전시회(FIME)로 매년 15~20여 개 바이어가 동 전시회를 방문하며, 이 외에 뉴욕 치과전(GNYDM), 워싱턴 미국피부 미용학회(AAD), 시카고 방사선의료기기전시회(RSNA) 등도 참관
- 로컬 파트너 현지 컨퍼런스, 체험행사 개최 지원을 통한 프로모션
 - 의료기기 및 미용기기는 고가제품으로 최종 소비자인 의사, 피부관리사 등의 구매결정을 돕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적용기술을 설명하고, 체험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효과적
- 유망품목
 - (미용기기) 피부관리실용 Hifu, CO2 Laser, 비만 관리용 체지방 측정기 등
 - (의료기기) 인슐린펌프, 초음파진단기, 파노라마촬영장비, 환자 모니터 등

2-3.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최근 5년간 한국산 승용차 시장점유율 38%
- E-Mobility 촉진법 적용으로 전기차, 전기오토바이 대상 세금감면 혜택 부여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한국산 차량 증가로 한국산 자동차 부품 수요 형성
 - 최근 5년간 한국산 승용차의 시장점유율은 약 38% 차지
 - 대체 가능한 부품에 대해서는 비순정 부품 사용을 선호
 - 현지 자동차보험 약관은 제조 3년 이내 차량에 대해서는 공식 딜러 지정 정비소를 통한 수리 및 순정부품 교체를 허용하지만, 해당 기간 경과 시 보험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해 수리하도록 하고 있음
- 2018년 E-Mobility 촉진법에 따른 세금감면 적용 이후 전기차, 전기오토바이 시장 확대 및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수요 증가
 - 전기자동차 및 오토바이에 대한 관·부가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 50% 감면
 - Uber eats, Glovo 등 모바일 음식 배달 플랫폼 활성화로 오토바이 수요 증가

- 민간전력업체 CEPM, 2020년 말까지 전기자동차 고속충전기 500대 설치 추진 중. 국영 남부 배전사도 2020년 초 파일럿 프로젝트(10대 설치) 추진



산업별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도미니카공화국은 시장규모가 작고(2018년 말 기준 승용차 누적등록대수 136만 대) 중소기업 바이어가 난립하여 국내기업이 제시하는 MOQ 수용 가능 바이어가 많지 않은 편이므로 단일품목 컨테이너 오더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소량 다품종 오더에도 적극 대응 필요
 - 유망품목
 - 전기 오토바이
 - 현지 보급률이 높은 차종(NF/YF 소나타, 기아 K5)의 트랜스미션, 브레이크 시스템, 쇼크 업소버 등*
- * 도미니카공화국 소비자들은 기계적 결함을 수반하지 않는 차체 손상 등 차량 운행에 무리가 없는 고장, 사고는 수리하지 않는 경향이 높음

3 한-도미니카공화국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1. 에너지 인프라

경제발전전략 이슈 및 전략적 가치

- SICA(중미통합체제) 회원국 중 최고 수준(2018년 19,651Gwh)의 연간 전력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전력 부족 현상에 노출되어 전력망 현대화, 신규 발전 프로젝트 수요 지속
-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 투자를 활용한 인프라 개선사업 추진 확대 전망
- 에너지/인프라부문 중국기업 투자진출 본격화 예상

해당국의 경제발전전략 및 주요 이슈

- 고질적인 전력부족 해소를 위해 신정부 출범 후에도 에너지 프로젝트 지속추진 전망
 - 2020년 US\$1.5억 규모 IDB 배전망 현대화 사업 국제입찰 예정
 - 2019년 잠정 보류 중인 LNG 발전 PPA 국제입찰 추진 재개 기대
 - 민간부문에서도 LNG 발전소 전환 활성화에 따른 LNG 수요확대로 터미널 증설 프로젝트 등 추진 예정
-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프로젝트 논의 확대
 - 재정부족으로 정부 주도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낙후 인프라 개선을 위해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PPP 법안 추진 중
- 중국기업 진출 본격화 예상
 - 중국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와 중국기업 참여 조건부 차관공여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도미니카공화국 2020년 예산안에 ‘중·저전압 전력망 현대화’ 사업 명목으로 중국수출입은행으로 부터의 US\$6.6억 규모 차관 반영
 - 중국기업 CSCEC는 현지 주요 건설기업 Sinercon과 인프라, 부동산 프로젝트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중국기업 Sinohydro는 유럽투자은행의 배전망 프로젝트 일부 수주*
 - * 총 15개 사업구역 중 한국전력 6개, Sinohydro 5개, 기타 기업 3개사 4개 구역 수주
- ‘만사니요 항구 확장 및 현대화 1단계 사업’ 2020년 예산 반영
 - 만사니요 지역은 에너지원 다변화, 북부지역 발전소 안배 필요성이 거론될 때마다 LNG 발전소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
 - 구체적인 자원 조달처는 미정인 상태이나, 해외차입을 전제로 사업 추진 계획

협력 의제 발굴 및 진출전략

- 주재국 프로젝트 시장은 아직까지 투명성이 부족하고 자의적 요소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지 정관계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현지 우량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적

- 입찰과정이 비교적 투명하고, 사업수행 대금 미수 리스크가 낮은 다자개발은행 파이낸싱 프로젝트 유망
- 우리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유망분야에 대해 주재국 정부와의 ODA 지원, Korea Trust Fund 활용 등을 통해 프로젝트 선점 방안 마련 필요
 - 도미니카공화국은 생산성 향상, 효율화, 제도개선 등 정책수립과 관련, 외국 정부로부터 다양한 ODA를 지원받고 있으며, 스페인, 프랑스 등 경쟁국은 자국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에 대한 ODA, 용자 지원을 통해 사업 기획 단계부터 자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넓히고, 주재국 정부와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음
 - * 스페인과 프랑스는 현지 정부를 대상으로 자국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수처리, 교통 등 유망분야에 대해 선진국 제도 벤치마킹, 타당성 조사, 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구상단계부터 밀착 지원, 주요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

3-2. 농수산 협력

경제발전전략 이슈 및 전략적 가치

- 농수산업은 非도시 지역경제의 근간으로서 중요성
- 농업진흥청 KOPIA와 국제개발협력단 KOICA가 현지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산 ODA 모델 개발 등 농수산 분야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 가능

해당국의 경제발전전략 및 주요 이슈

- 농수산업 비중은 도미니카공화국 GDP의 5% 수준에 불과하나, 대체 산업이 없고, 별다른 고용이 발생하지 않는 비도시 지역경제에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지며, 도미니카공화국의 주요 수출 산업으로서도 의미가 큼
- 농업 분야는 주로 아이티 이민 노동자들의 저렴한 노동력에 의지하고 있어 생산성이 낮으며, 수산양식업의 경우도 기술력 부족으로 규모화 되지 못함

협력 의제 발굴 및 진출전략

- 기술이전 및 상품화 지원을 통한 현지 산업 부가가치 제고
 - ODA, KSP 사업을 통해 현지 농수산업 기계화, 현대화 및 상품화 지원
 - 농수산업 종사자들의 비용절감 및 상품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현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해당 과정에서 우리 기술 및 상품 수출기회 확대
- 현지진출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 KOPIA(벼농사 현대화 사업), KOICA(양식기술보급을 통한 빈곤층 소득증대 사업), KOTRA(국내기업의 기술, 제품 도입, 사후지원이 가능한 현지기업 연계) 간 기관 역량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4

진출 시 유의사항

독점권 요구 유의	외상거래 유의
■ (현황) - 좁은 국토(전국 상권), 중소기업 간 경쟁 심화로 독점권 요구 일상화 - 대리점/에이전트 계약 중도해지가 어렵고 손해배상 책임 발생 ■ (대응전략) ☞ 우량 바이어에게 사실상 독점권을 부여하더라도 독점권 서면계약 지양, non-exclusive agent로 추진	■ (현황) - 장기 거래고객의 경우에도 외상 거래 시 계약 일정보다 대금 송금을 지연하는 관행 - 시중은행의 달러부족으로 수출대금 확보에 시일이 소요된다는 변명(일정 부분 사실이기도 함) ■ (대응전략) ☞ 장기 거래고객이더라도 외상거래 시 반드시 무역보험 가입
소비재(식품/화장품) 인증 필수	B/L 사본 악용사례 유의
■ (현황) - 식품 및 화장품은 정식 수입을 위해서는 보건부 인증 획득 필수(단 1회, 극소량 샘플오더 가능) - 화장품은 유통면허를 가진 기업만 정식 인증, 유통 가능 - 미인증 제품 수입유통 단속 강화 중(세관 압류 등)이며, 대형 유통망 진출 불가 ■ (대응전략) ☞ GMP, CFS, Health Certificate 등 인증 및 수출 제반서류 사전 확보. 현지 바이어의 화장품 정식 유통허가 보유여부 사전 확인 등	■ (현황) - 잔금 송금 전 B/L사본을 입수한 악덕 바이어가 사본으로 통관 완료 후 잔금 미지급, 연락 두절된 사례 발생 - 바이어의 악의, 원본과 유사한 컬러스캔본, 현지 세관의 허술한 업무처리 관행 등이 종합된 사건 ■ (대응전략) ☞ 잔금 송금을 위한 바이어 B/L사본 요구가 있을 경우, 번호 일부를 가리거나, 흑백스캔, "copy" 표시 등 진본으로 위장이 어려운 사본 송부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HS Code	901890	수입관세율(%)	0%
미용기기	수입액('18/US\$백만)	65.10	대한수입액('18/US\$백만)	0.51
	선정사유	한국산 미용기기에 대한 인지도, 관심 증가		
	시장동향	에스테틱 시장 확대로 수요 증가		
	경쟁동향	국내브랜드 선전, 유럽산 제품과 경쟁		
	진출방안	로컬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현지 에스테틱/성형외과 대상 컨퍼런스, 세미나 등 개최 후원을 통한 고객저변 확대		
품목명 2	HS Code	9022	수입관세율(%)	0~3%
의료기기	수입액('18/US\$백만)	16.18	대한수입액('18/US\$백만)	0.19
	선정사유	한국산 의료기기 가성비 우수		
	시장동향	병원 신설, 시설 현대화 등 의료기기 수요 꾸준		
	경쟁동향	미국/유럽산과 중국산 저가 시장 양분		
	진출방안	FIME 등 중남미 바이어들이 많이 참관하는 북미 전시회를 통한 마케팅, 현지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관련 의료계 대상 컨퍼런스 개최 후원 등 마케팅		
품목명 3	HS Code	2101~2106	수입관세율(%)	0~20%
가공식품	수입액('18/US\$백만)	202.96	대한수입액('18/US\$백만)	0.31
	선정사유	한국 유학생, 한류 팬 등 중심 한국산식품 수요 확대		
	시장동향	구매력 향상으로 외국 식료품, 건강식 관심 증		
	경쟁동향	미국 및 식문화가 유사한 중남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 활발		
	진출방안	대부분의 리테일러들은 소수 대량소비 아이템을 제외하고는 위생보건 인증 절차를 완료한 현지 도매상을 통한 구매를 선호하므로 위생보건 인증 역량을 갖춘 교포 유통기업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		
품목명 4	HS Code	3304	수입관세율(%)	20%
화장품	수입액('18/US\$백만)	56.61	대한수입액('18/US\$백만)	0.43
	선정사유	미용 분야에 대한 현지인의 높은 관심도와 한국산 스킨케어에 대한 관심 증가		
	시장동향	구매력 향상에 따른 수입증가, K-beauty 인지도 상승		
	경쟁동향	자국 내 제조업 발달. 이외 미국, 콜롬비아, 멕시코, 프랑스, 스페인산 수입 활발		
	진출방안	대형 유통망은 보건인증 문제로 직수입을 꺼리므로, 보건인증 역량을 갖춘 현지 수입상과 협력 필요		
품목명 5	HS Code	8504	수입관세율(%)	0%
변압기	수입액('18/US\$백만)	76.94	대한수입액('18/US\$백만)	0.20
	선정사유	전력사정 낙후로 관련 수요 꾸준		
	시장동향	전력망 개선프로젝트 지속 추진. 중국산 제품의 높은 불량률로 대체재 발굴희망 바 이어 수요		
	경쟁동향	미국, 중국, 콜롬비아산 제품 점유율 강세, 배전망 개선 사업 중국기업 참여확대로 중국산 제품 진출확대 예상		
	진출방안	전력청 프로젝트 주요 수주기업과 협력, 제품 인증 및 공공입찰 참여		

품목명 6	HS Code	8708	수입관세율(%)	8~14%
자동차 부품	수입액('18/US\$백만)	88.66	대한수입액('18/US\$백만)	5.87
	선정사유	한국산 자동차(신차, 중고차) 판매 호조 및 LPG 택시 보급 확산에 따른 중고 부품 수요 확대 예상		
	시장동향	한국 차 보급 확대에 따른 A/S 수요 꾸준		
	경쟁동향	저가 중국산 제품이 수입 1위인 가운데 자동차 주요 수입국인 미국, 일본, 한국산 부품 수입 활발		
	진출방안	소량주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 소나타, K5 등 현지 점유율이 높은 택시 차종 수요 높음		
품목명 7	HS Code	2202	수입관세율(%)	20%
음료	수입액('18/US\$백만)	53.94	대한수입액('18/US\$백만)	1.71
	선정사유	무더위와 수질 불량으로 음료수요 높음		
	시장동향	현지생산 및 수입제품 경쟁치열 새로운 원료 및 기능성 음료에 대한 관심 증가		
	경쟁동향	미국 및 중미지역 생산 제품 점유율 높음		
	진출방안	위생보건 인증역량을 갖춘 교포유통업체 활용, 독특한 원료를 활용한 현지 미생산 신규 품목 중심 소개		
품목명 8	HS Code	3004	수입관세율(%)	0
의약품	수입액('18/US\$백만)	565.30	대한수입액('18/US\$백만)	2.11
	선정사유	의료/보건 수요 꾸준		
	시장동향	저가 정부조달 시장과 중고가 민간 병원 양분		
	경쟁동향	입찰 시장은 중국, 인도산 저가 의약품 장악, 민간병원은 미국/유럽산 오리지널 의약품 강세		
	진출방안	공공조달 시장의 경우 저가 의약품 선호현상이 뚜렷하고, 정부의 조달 업체 대상 대금지급 지연 사례가 많으므로, 민간 병원 납품바이어 위주 공략		
품목명 9	HS Code	87038019	수입관세율(%)	20
전기차/ 전기오토바이	수입액('18/US\$백만)	0.86	대한수입액('18/US\$백만)	0.01
	선정사유	시장규모는 작으나, 수입량 증가세		
	시장동향	중고차 위주의 시장, 관광업 발달 동부지역 중심으로 관심 증가		
	경쟁동향	닛산 리프, 테슬라 등 미국산 중고품 및 중국산 신제품 강세		
	진출방안	A/S 역량 갖춘 로컬파트너와 협력		
품목명 10	HS Code	850440	수입관세율(%)	0
전기차 충전기	수입액('18/US\$백만)	36.34	대한수입액('18/US\$백만)	0.18
	선정사유	민간주도의 전기차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가시화, 전기차 보급 확산에 대한 정부 의지 반영		
	시장동향	CEPM사, 2020년 말까지 전기자동차 고속충전기를 500대 설치 계획 발표. 남부 배전 2019년 9월 말 전기차 충전기 공공조달 입찰(10대) 최초 추진, 향후 확대 예상		
	경쟁동향	미국 Blink사, 민간 발전사업자(CEPM)과 MOU 체결		
	진출방안	주로 국내입찰로 진행되므로 설치/기술지원 가능한 로컬파트너와 협력		

* 상기 수입통계는 도미니카(공) 관세청자료 기준으로 KITA 무역통계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선정사유	국내기업 경쟁력 보유 업종, 현지 수요 증가 예상
플랜트	시장동향	전력, 환경, 상하수도 등 시설 현대화 수요 증가 민간투자 장려를 위한 PPP(민관협력) 법안 상정
	경쟁동향	미국, 유럽기업과 해당 기업의 현지법인, 로컬 유력 건설기업들 다수 포진. 중국과 수교 이후 중국기업의 현지진출 확대 예상
	진출방안	우수한 파이낸싱 조건 제시 필요. 관련 프로젝트 시공경험이 있는 현지 유력 파트너 협력 필요
품목명 2	선정사유	시설 현대화, 관광 활성화 및 수출증대 목표로 항만 인프라에 대한 민자 유치 확대
항만 인프라	시장동향	컨테이너 물동량 취급 증가, 크루즈 여객 증가 북부지역 항만시설 현대화 요구 관철,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만사니요 항구 현대화 반영
	경쟁동향	중동(DP World), 멕시코계 컨소시엄(Puerto Plata Port Investment) 등 현지 항만 기 투자. 중국 기업 투자관심 증가
	진출방안	관광 및 산업 인프라 연계 등 개발 등 대상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제 활성화 방안 제시 정관계 네트워킹 역량을 갖춘 유력 파트너 협력

첨부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 2020년 확정된 사업 없음

첨부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내용	일시(잠정)	비고
대통령/국회의원(상/하원)/지방자치단체 선거	2020.5.17	상원 32석 하원 190석
도미니카공화국 인구주택 총 조사(CENSO 2020)	2020.6월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상위 2인)	2020.6.28	1차 선거 과반 득표자 없을시 진행
신임 대통령 취임 및 신정부 출범	2020.8.16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내용	일시(잠정)	비고
정부예산안 발표	2020.9월	

유망 전시회 캘린더

산업	품목	전시회명	일시/장소
종합	종합품목	CamaraHUB	2020.3월/산토도밍고
종합	종합품목	Expo CIBAO	2020.9월/산티아고
종합	종합품목	Expo Comercial Asonahores	2020.9월/푼타카나

I. 한-도미니카공화국 상생협력 필요성과 미래비전

가. 도미니카공화국의 협력 잠재력과 주요국 협력 현황

 도미니카공화국의 잠재력

- (안정적 경제성장) 최근 5년간 연평균 6% 이상 성장
- (투자진출여건 양호) 수출자유지역 운영, 값싼 노동력과 무관세 교역 환경
 - 전국 70여 개 수출자유지역을 통해 국가 총수출의 약 57% 달성
 - 수출자유지역 최저임금 차등적용(일반대비 저렴), 투자가 대상 정부 밀착지원
 - DR CAFTA, EU와의 EPA를 활용한 무관세 수출기회 다대
 - 물류/항공/해운 발달
- (신정부 출범) 2020년 8월 신정부 출범 예정으로, 새로운 국가비전 제시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수요 예상

 주요국의 대(對)도미니카공화국 협력 현황

- 전통적으로 미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국가였으나, 2018년 중국과 국교 수립 후 중국의 영향력 확대기류로 인해 미국의 견제와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

주요국의 대(對)도미니카공화국 협력 현황

주요국	주요 협력내용
미국	· 재화, 서비스, 자본 등 전 영역에 걸쳐 미국에 대한 경제의존도 매우 높음 * 대미(對美) 교역이 국가 총 교역의 50% 이상 차지(수출의 55%, 수입의 42%) * 대(對)도미니카(공) FDI 1위(2018년 FDI의 28%), 재외국민 송금 약 US\$65억(2018년 기준) * 외국인 관광객의 40%가 미국인 * IDB, WB 등 MDB와 민간투자공사 등 활용, 프로젝트 참여
중국	· 국교 수립(2018년 5월) 이후 일대일로 요충지 도미니카공화국과의 협력 추진 본격화 * 경제, 무역, 관광, 인프라 프로젝트, 외교, 스포츠 전반에 걸친 18건의 협정 체결 * 소방차 기증, 공무원 초청 연수사업 등 ODA 본격 지원 착수 * 2020년 전력망 개선사업 US\$7억 차관 지원 및 금융 약정 등 활용 인프라 협력 강화 추진
프랑스	· 장기차관을 활용한 자국기업 관심 분야 협력 지원에 적극적 * 프랑스개발공사(AFD), 지하철 건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분야 장기차관 * 2019년 말 기준 도미니카공화국의 양자차관(대외채무 중 MDB, 국제 등 제외)의 약 26%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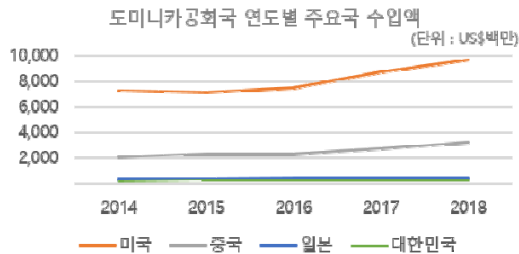


한-도미니카공화국 협력 현황

- 양국은 1962년 국교 수립 이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켜왔으며, 도미니카공화국은 특히 한국의 발전경험 공유에 적극적
- 그러나 우호관계 대비 교역, 투자 등 경제협력은 미흡한 수준
 - 양국 교역은 연간 약 US\$4억(2018년 기준)에 불과하며, 최근 3년간 지속 감소
 - 경쟁국 대비 우리기업의 투자진출도 미미

한국-도미니카(공) 및 주요국 교역/투자 동향

1. 도미니카공화국의 연도별 주요국 수입



- 2018년 도미니카공화국의 주요국 수입액은 미국으로 부터 약 96억 불, 중국 32억 불, 일본 4.2억 불, 한국 2.8억 불 규모
- 2017~2018년간 대미(對美) 수입은 연11%, 대중(對中) 수입은 17%, 대일(對日) 수입은 12% 증가 함. 다만, 한국은 엔저에 따른 일본산 자동차 가격 경쟁력 상승, 중고차 수출 환경 악화 등으로 수출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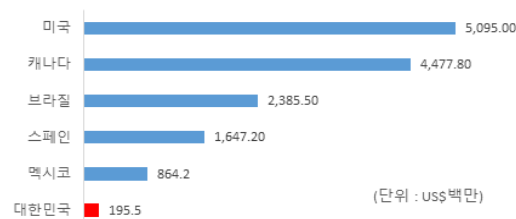
자료 : Trademap.org

2. 대(對)도미니카(공) 한미중일 수출 상위 5개 품목(HS코드 2단위, 2018년 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한국	자동차 및 부품	전기기기 및 부품	기계 및 부품	플라스틱	의약품 및 의약품용품
미국	연료 및 에너지	플라스틱	전기기기 및 부품	기계 및 부품	자동차 및 부품
중국	전기기기 및 부품	기계 및 부품	철강	플라스틱	자동차 및 부품
일본	자동차 및 부품	기계 및 부품	철강	광학/의료기기	고무 제품

- (수출경합도) 대(對)도미니카(공) 수출 상위 5대 품목 가운데,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과 각 4개 품목, 일본과 2개 품목이 겹치며, 이외 품목의 경우도 대부분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에 해당

3. 대(對)도미니카(공) 투자진출 현황(2018년 말 누계 기준)



- 대(對)도미니카공화국 주요 투자국은 미국을 비롯한 미주, 유럽 국가들이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진출은 활발하지 못한 편임
- 도소매/제조업(25.5%), 관광업(19.1%), 광업(15.7%), 부동산(14.8%), 수출자유지역(7.6%) 순
- 단, 2018년 중국과의 국교 수립 이후 중국기업의 현지 투자실행 및 검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기타국) 도미니카(공)중앙은행

나. 한-도미니카공화국 상생협력 미래비전 도출

미, 중 양강의 자국 내 영향력/주도권 다툼 속에서 경제적 실리 추구

==> 한-도미니카공화국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 파트너십 필요

○ 대(對)도미니카공화국 투자진출을 통한 Win-Win 모색

-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산업 고도화를 통한 신규투자 유발, 고용증대, 부가가치 제고 등 국가 경제 개선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출자유지역 내 우수기업 투자유치 및 선진국의 산업 육성정책, 경험 벤치마킹에 관심이 높음
- 한편, 도미니카공화국은 미국, 유럽 등 빅마켓과 인접하고,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저렴한 노동력 공급이 풍부한 수출자유지역을 운영하고 있어 북미, 유럽 시장을 겨냥한 우리기업들의 제조업 투자거점으로서도 유망하여 양자 간 이해관계 부합
- 또한, 농수산 분야 기술이전 및 투자를 통해 농수산물의 생산성 및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지역 경제 발전 및 저소득층 소득증대 지원 기여 가능

○ 교역품목 다변화

- 우리나라의 수출은 3개 품목(자동차, 자동차부품, 전기부품)에 72% 편중. 도미니카공화국의 대(對)한국 수출은 폐배터리, 고철스크랩 등 저부가가치 제품 및 수출자유지역의 외국기업 생산 제품(의료용품 등) 위주
- 우리 수출품목 다변화를 통해 특정 품목 부진으로 인한 교역량 급감 현상을 완화하고, 양국 간 농수산물식품 검역협정 체결로 도미니카공화국이 수출 증대를 희망하는 농산물(열대과일, 카사바 등) 및 기호식품(시가, 립)에 대한 수입문턱을 낮춰 경제 교류 확대 추진

도미니카공화국의 협력수요 산업

산업	구체적인 수요(협력방향)
에너지/건설/인프라	◆ 대규모 건설/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 수처리, 환경, 에너지 등 분야, PPP
제조업	◆ 투자진출, 발전경험 공유를 통한 산업 고도화 - 유망산업 부가가치 제고 및 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
농수산업	
ICT(사이버 보안)	◆ 사이버 안보 강화 - 사이버관제센터 설립 및 안보 정책 구축
보건/의료	
소비재	◆ 상호 교역 확대 - 교역 다변화 및 주요 품목 수출확대

II. 주체별 상생협력 과제와 실행방안

가. [G2G]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우호적 경제통상환경 조성

①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교역확대 기반 마련

- (현황) 도미니카공화국 바이어들은 한국산 제품에 우호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나, FTA를 체결하고 있는 경쟁국(미국, EU 등) 대비 3~20% 내외의 관세 추가 부담을 고려 시 장거리로 인한 운임과 리드타임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산 제품을 수입해야 할 당위성을 낮게 평가함. 따라서, 우리기업 수출 경쟁력 개선을 위해 FTA 체결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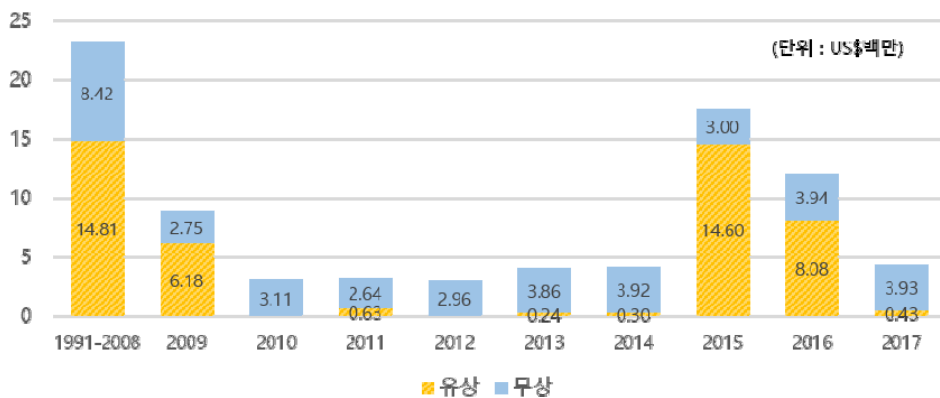
* 한국의 대(對)도미니카공화국 5대 주요 수출품목 중 4대 품목이 FTA를 체결하고 있는 미국의 주요 수출 품목과 일치

- (기업 수요) 한국, 자동차 및 부품, 건축자재, 건설기계, 전력기자재 등
 - － 도미니카공화국은 카카오, 럼, 과일 등 농산품의 아시아 시장 수출 확대를 희망하며, 수출자유 지역에서 생산되는 의료기기, 위생용품 등에 대한 수출 환경 개선 희망. 또한 한국산 자동차 수입딜러들도 미국, 유럽산 차량 대비 경쟁력 유지를 위해 FTA 체결을 희망
- (향후 제안) 양국 교역규모를 고려할 때 양자 협상의지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한-중미 FTA 등 기존 역내 다자 FTA 편입 검토 필요

② ODA를 활용한 산업·정책 한류 확산

- (정책수요) 도미니카공화국은 산업/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인력양성, 기술표준 마련, 공공 분야 ICT 기술 적용 등에 대한 협력수요를 갖고 있음
 - －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 공유 및 기술 공유를 통한 친한국 문화 확산 가능
- (협력 현황) 1991년~2017년(2019년 기준 최근 통계) 우리나라의 대(對)도미니카공화국 ODA 규모는 약 US\$8,300만 수준이며, 2건의 유상원조사업 포함
 - － 무상원조는 기업/산업역량강화 관련 각종 컨설팅 및 소규모 프로젝트 사회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등이 주를 이룸
 - － 유상사업은 ICT 분야 협력사업으로, 2008년 관세시스템 전산화(US\$1,781만) 및 2013년 출입국관리시스템 구축사업(US\$2,265만) 추진

우리나라의 대(對)도미니카공화국 ODA 지원실적(총지출기준)



자료 : OECD stats(Aid(ODA) disbursements [DAC2a], 2019년 10월 조회 기준)

2019년 부처별 대(對)도미니카공화국 ODA 지원현황

기관	사업명	사업유형	사업기간	구분
기획재정부	도로자산관리 시스템 전략 수립	개발컨설팅	2019~2020	다자성 양자
	농어촌/격오지 브로드밴드 구축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모델 설계	개발컨설팅	2018~2019	다자성 양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방송 환경 개선지원	프로젝트	2019	양자 무상
	정보접근센터 구축 및 운영	프로젝트	2019	양자 무상
농촌진흥청	해외 농업기술 개발사업	개발컨설팅	2018~2022	양자 무상
특허청	도미니카공화국 카사바 분쇄기 개발 사업	프로젝트	2019	양자 무상
KOICA	미성년자 임신방지 및 여성보건 환경 개선 3차 사업	프로젝트	2018~2022	양자 무상
	과학기술인력 양성사업	프로젝트	2015~2021	양자 무상
	혁신 기업가 역량강화 사업	연수사업	2018~2020	양자 무상

자료 : <http://odakorea.go.kr>

- **(협력전략)** ODA 지원창구를 공관으로 일원화하고,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관심사안에 대해 공관을 주축으로 유관기관 간 연계 검토하여 체계적 지원방안 수립, 협력
 - － 주재국 사업수요 중 우리기업 진출 유망분야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담당 현지 정부 기관과의 스킨십 확대 및 초기 정책 수립, 사업 기획 단계부터 한국형 개발모델을 제시하여 우리기업에 우호적 진출 환경 조성

주재국 협력 관심 분야

- ▶ **정부의 산업진흥 역량 강화 지원** → 유망 잠재 산업(제조업, 농수산업, 보건/의료 산업 등)에 대한 지원정책, 인증/표준 마련, 신기술 도입, 상품화 지원을 통해 ① 해당 산업 육성 및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② 해당 분야 우리기업 진출 간접 지원
- ▶ **사이버 보안 관제센터 설립 지원** → 사이버 관제센터 설립을 통해 ① 국가 사이버 안보 정책개발, ② 관련 인력양성을 지원하여 국가 사이버 안보 증진

③ 식품/위생/의약품 등 인증절차 간소화, 상호인증 협력

- (정책수요) 기업 환경 개선 및 수출 진흥을 위해 인증 등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
 -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도미니카공화국 국가 경쟁력 강화위원회는 규제 완화 및 행정 간소화를 주요 혁신과제로 지목, 정부는 “RD+Simple”라는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민 및 기업 등 각계로부터 간소화가 필요한 분야, 사유 등 의견 수렴 중
 - 농산물, 가공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인증 절차 간소화, 상호 인증을 통해 양국 간 경쟁력 보유 제품의 시장 진입 장벽 완화, 교역 확대
- (협력방안) 품목별 주관부서, 기관 간 공동 세미나·포럼 개최 등 인증 관련 정보공유 및 인적교류를 통해 양국 인증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제고

나. [B2B] 양국 기업 간 협력 증진

① 제조업(전기/전자제품, 의료기기) 협력

- (현지 수요) 수출자유지역 내 제조업 고도화,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우수 제조기업 유치 희망
 -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출자유지역은 전통적으로 섬유봉제업 의존도가 높았으나, 2004년 다자간 섬유협정 종료 이후 산업모델 개편에 힘써 현재 의료용품, 전기·전자부품 제조 등으로 업종 다변화에 성공
 - 그러나 전력개폐기, 수술용구 등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 조립공정에 집중되어 있어 지속가능한 성장에 한계를 느끼고 있음
 - 이에, 도미니카공화국은 한국의 우수한 전기·전자제품 및 의료기기 제조업체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고부가가치 제조업 숙련인력 양성, 생산품의 북미, 유럽 시장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 (협력체계) 투자진출을 통한 우리기업과 현지기업 간 협력과 상생
 - (우리기업) 국내 주요 제조기업 현지진출을 통한 생산단가 및 물류비용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 제고, 미국 시장 무관세/무쿼터 수출 환경 확보
 - (현지기업) 진출기업에 대한 중간재, 서비스 제공 등 가치사슬 편입

② 소비재 유통 활성화

- (현지 수요) 최근 5년간 평균 6.6%의 실질 경제성장 기록, 소비자 구매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류 확산과 인터넷, Netflix 등의 보급으로 한국식품, 화장품, 캐릭터 제품 등에 대한 관심 증대
 - 한국 교포기업인이 운영하는 한국식품점 Korean Mart는 2018년 9월 개점 후 1년 만에 점포를 3개소로 확장하였으며, 현지 대기업이 한국산 화장품 브랜드 공식 런칭을 위해 2019년 방한하는 등, 수요 확대

- **(한국역량)** 한국은 소비자 요구수준이 높고 경쟁이 치열하여 원료, 디자인, 기능 등이 차별화된 신제품을 활발하게 출시하고 있으며, 한류 붐이 아시아, 미국을 넘어 중남미 지역까지 확산
- **(협력체계)** 인증취득 지원 및 온라인 홍보·쇼핑 플랫폼 구축
 - **(인증취득)** 위생보건 인증이 필수적인 식품 및 화장품 등 주요 소비재 품목에 대한 현지 인증 대행 에이전트 Pool을 구성, 국내기업 제출서류 취합·검토를 지원하여 경험과 정보부족에서 오는 시간 및 비용 손실 최소화
 - **(온라인 플랫폼)**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홍보 콘텐츠 공동개발 및 판매 플랫폼 구축 노하우를 전수하여 모바일·온라인을 통한 마케팅과 매출 증대 지원
 - * 도미니카공화국 기업들은 오프라인 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편이나, 한류 소비재의 주요 타깃 층인 젊은 소비자들은 미국 아마존 등을 통한 온라인 직구 선호. 도미니카공화국 소비재 바이어들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도입이 시급

③ 보건/의료

- **(현지 수요)**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중점 정책과제로써, 신정부에서도 유지 또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병원 신설 및 보건소 확충에 따른 의료기기 및 의약품 수요 증가 예상. 민간부문에서도 가성비 높은 한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 증가
- **(한국역량)** 의료기기 및 바이오시밀러는 FTA 체결여부와 상관없이 무관세를 적용받음으로 미국, 유럽산 제품 대비 높은 가성비를 보이며, 인증에도 익숙
 - 단,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공공조달 부문에서는 한국산보다 좀 더 저렴한 인도, 중국산 제품을 선호하여 경쟁력이 낮음
 - 의약품 및 체내에 투입/접촉이 발생하는 의료기기·용품의 경우 인증이 필요하나, 국내 수출업체는 대체적으로 미국, 유럽 인증을 보유하여 관련 절차 수월
- **(협력체계)** 컨퍼런스 개최, CSR 활동 등을 통한 현지 마케팅 활동 지원
 - 현지 시장에 신제품 런칭 시 제조사와 관련학회 후원, 컨퍼런스 개최 등 공동 마케팅 활동 추진
 - 빈곤 지역 등 대상 의약품, 유휴 의료장비 기증 등 CSR 활동을 통한 제품·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현지 파트너 기업 영업활동 지원

다. [B2G] 에너지·인프라 개발 협력 강화

협력수요

- **(시장현황)** 도미니카공화국은 환경·에너지 등 인프라 개선 수요에도 불구하고, 재원 부족 및 역량 부족으로 정부 주도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정책수요)** 도미니카공화국, 2020년 신정부 출범 이후 경제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에너지,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추진 예상

- 고질적인 전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LNG 및 신재생에너지 등 다변화된 에너지원으로서의 발전 프로젝트 및 배전망 현대화 수요
- 친환경 자동차 도입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소 등 E-Mobility 인프라 구축도 점진적으로 추진될 예정
- 폐기물, 오폐수 처리를 위한 환경 플랜트와 상하수도, 농업관개시설 확충도 정부 주요 관심사
- 부족한 재원과 정부 역량을 고려, 민간차원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PPP 법안 도입 추진 중

협력방안

- **(현지 파트너링)** 대(對)정부 협상력 제고를 위해 현지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중요
 - 주재국 프로젝트 시장은 투명성이 부족하고, 자의적 요소 반영 가능성이 큼
 - 정관계 네트워크 확보 현지 우량 기업 또는 기진출 외국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권장
- **(정부기관 협력 및 동반진출)** 정부 간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기업 등을 포함한 민-관 공동 컨소시엄, 동반진출 추진
 - 주재국 공관, KOTRA, MDB 파견인력 등을 통해 프로젝트 수요를 조기에 발굴하고, 한국의 우수 사례 전파 및 발주정보 모니터링
 - 프로젝트 유관 국내 공기업과 민간기업 컨소시엄 구성 및 국내 중소형 협력사 동반진출 지원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라. [국민] 상호 이해증진 및 동반자 관계 형성

한류 및 스포츠를 활용한 문화교류 촉진

- 현지 공관에서는 한국영화 상영, 한식 시식행사, 한반도 퀴즈대회, K-pop 경연, 지방중소도시 한국문화주간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미니카공화국에 한국을 알리고 있음
- 한편, 도미니카공화국은 다수의 유명 메이저리거를 배출한 야구강국으로 자부심이 높으며, World Baseball Classic 등을 통해 접한 한국 야구에도 관심을 갖고 있음. 양국 간 야구를 활용한 스포츠 외교를 통한 친밀감 형성에 용이

상호 관광 진흥을 통한 인적교류 확대

- 양국 간 인적교류 확대를 통한 경제협력 증진 및 친한 네트워크 기반 강화 추진
 - 2018년 기준 한국인 관광객의 도미니카공화국 방문은 2,865명. 도미니카공화국은 카리브 주요 관광대국으로 연간 7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관광 진흥 정책 적극 추진. 아시아 관광객은 약 3만여 명에 불과하여 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수요 다대

- 한편, ODA, KSP 연계 방한연수 사업 등 추진으로 도미니카공화국 국적자의 한국방문은 최근 10년간 약 3배 증가. 이 외, 한류 팬 및 비즈니스 인센티브 관광객 유치를 통해 방문객 프로파일 다변화 모색

* 주재국 대사관은 한국 관광사진전, 현지 주요 여행사 대상 한국관광 홍보사업 등 진행

* 중국인 관광객의 대(對)도미니카공화국 방문은, 2019년 1~8월 기준 전년 대비 48% 증가

최근 10년 연도별 양국 국적자 출입국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누계
한국 → 도(공)	2,005	2,468	2,427	2,313	2,566	1,860	1,811	2,293	2,970	2,865	23,578
도(공) → 한국	344	343	451	517	624	490	751	1,307	1,054	1,033	6,914

자료 : 도미니카공화국중앙은행(한국→도공), 한국관광통계(도공 → 한국)

Ⅲ. 향후 對도미니카공화국 K패키지 실행체계(안)

 공관/KOTRA/유관기관 및 진출기업 간 유기적 협력하에 주재국 신정부와 상시 협업체계 구축 → 정부 차원 K패키지 마련

- 도미니카공화국 신정부 출범 관련 고위 정부인사 순방 등 계기, 주재국 정부의 통상·경제협력 니즈 파악
- 공관과 현지 진출 유관기관(KOICA, KOPIA) 간 상시 정보공유, 진출기업 협의회 및 수출기업 설문 등을 통한 기업 수요 파악 및 주재국 정부 니즈와 매칭
→ 외교, 안보, 사회, 경제, 문화 등 분야 참여주체 수요를 반영한 패키지 개발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최숙영	관장	산토도밍고무역관	+1-809-567-9733	tabien@kotra.or.kr

KOTRA자료 20-097

2020 국별 진출전략 도미니카공화국

발 행 인 권평오
발 행 처 KOTRA
발 행 일 2020년 1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한릉로 13
(06792)
전 화 02) 1600-7119(대표)
홈 페이지 www.kotra.or.kr
문 의 처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9)
I S B N 979-11-6490-243-9(95320)

Copyright © 202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